DAILY

# The Korea Times Toronto

# 한국일보

토론토

No. 945 1982년 10월 5일(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Tuesday, October 5, 1982

토론토발행인 : 김영규
편 집 인 : 이석현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OCT 7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한국인의 날(Korean Heritage Day) 기념식 광경. 2일 저녁 몬트리얼 시내 마운트·로열호텔 볼·룸에서 한·카 인사 6백여명이 참석했다.
해드·테이블 왼쪽으로부터 오기송 총연합회회장 부처, 이규현 대사 부처, 김창훈 몬트리얼총영사 부처.

## 한인의 날 첫 기념행사

# 이민증대 서명서 전달

## 몬트리얼서 3일간 심포지엄등 가져

(몬트리얼=조미래 부장·정관성 지국장)캐나다정부가 작년에 10월3일을「한인의 날」(Korean Heritage Day)로 제정한 이후 최초의 전국규모 기념행사는 2일밤 이민증대를 위한「1만명 서명탄원서」를 캐나다정부및 한국정부에 전달함으로써 절정에 이르렀다.

트루도 수상은 "한인의 날" 축하전문에서 "캐나다정부는 한인을 비롯한 전 캐나다 국민들이 문화의 뿌리를 고수할 선택의 자유를 보호할 것이며, 이러한 자유야말로 캐나다국민의 기본권리임을 재삼 확인한다"고 밝혔고, 한국정부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이규현 대사는 "총연합회의 공을 치하하고, 교민들이 한·카 양국의 유대강화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념식, 심포지엄,「문화의 밤」행사등으로 진행된 3일간의 이번「한인의 날」행사는 (1)캐나다교민 전체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기구로 총연합회가 캐나다정부에 부각된 점, (2)한국계 교민의 조직·단결에의 저력을 과시한 점, (3)전국각지역 한인 대표가 3일간 회합, 서로의 실정·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대화의 광장이 마련된 점에서 효과가 있었으나 2일 심포지엄에서 시간에 쫓겨 집중토의가 불가능했고, 일부 강사로 논제에 부적합한 학자가 선정된 관계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점이 아쉬웠다고 한 동부지역 참가자가 논평했다.

특히 한 여성참가자는 한국 이민여성에 관한 첫번째 심포지엄이란 점에서 기대를 가졌었으나 실망이 컸으며, 앞으로는 한인단체들에서 여성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논의의 기회가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일밤 몬트리얼 시내 마운트·로열 쉐라톤·호텔 볼·룸에서 저녁 7시30분부터 11시경까지 거행된「한인의 날」기념축하식에는 이규현 주캐나다 한국대사, 김창훈 몬트리얼총영사및 캐네디언 인사와 각지역 한인대표및 몬트리얼교민등 600여명이 자리를 같이했다.

특히 트루도 수상, 로이드·익스워디 이민성장관, 짐·플레밍 복합문화성 장관은 전문을 보내 축하의 뜻을 전했다.

트루도 수상의 전문은 이날 캐나다정부를 대표하여 참석한 토라·루지에 복합문화성 프로그램연락관에 의해 대독됐다.

총연합회는 또 이날 식전에서 총연합회 발전에 경제적 협조가 큰 토론토의 황대연씨(의사), 연합회 활동상황 보도에 공이 큰「토론토 한국일보」발행인 김영규씨, 부녀회 조직에 힘쓴 양혜신씨(토론토 대한부녀회장)및 한·카양국 우의증진및 협조에 노력한 로버트·콧츠 하원의원을 표창했다.

표창에 앞서 오기송 총연합회회장은 금년 봄부터 전국 한인회, 각 지역교회및 단체를 통해 추진한 이민증가를 위한 1만명서명운동의 증서를 캐나다및 한국 양국정부를 대표한 루지에 여사와 이대사에 각각 전달함으로써 교민들의 이민수 증대및 권익강화에의 염원을 전달했다.

(총연합회가 추산한 서명자의 수는 실제 만명에 못미치는 6천명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귀빈석에는 왼쪽부터 강신봉 총연합회이사장, 루지에 복합문화성 연락관, 오기송 총연합회회장 부처, 이규현 대사 부처, 김창훈 몬트리얼총영사 부처, 장·레옹·캉텡 퀘벡정부이민관 부처등이 자리했고, 기념식과 파티는 영어, 불어에 유창한 정희수 박사(몬트리얼한인회장·퀘벡대교수·도시경제학)와 정영섭 박사(몬트리얼대 교수·세균유전학)에 의해 3개국어로 진행됐다.

총연합회의 발전에 큰 힘이 되어온 토라·루지에 복합문화성 연락관은 이날 기념파티에 참석한 소감에서 다른 민족에게도 민족의 날(Heritage Day)이 있지만 이같이 성대한 기념행사를 갖는 민족은 보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한국이민 특히 여성문제에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기념식과 만찬에 이어 같은 장소에서 한국 고전음악및 무용소개에서는 한인민족상 수상자인 에드몬톤의 김영숙 여사와 몬트리얼의 김영주양이 춘앵무, 바라춤, 오고무, 가야금 병창, 수건춤, 부채춤, 탈춤등을 선사했다.

캐나다 전국 15개 한인회 대표 30여명및 몬트리얼 교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있은 1일 개막행사는 몬트리얼 총영사관 제공의 환영만찬및 각지역 한인회 보고로 이루어졌다.

만찬을 제공한 몬트리얼 총영사관의 김창훈 총영사는 환영사에서 "현재 5만으로 추산되는 캐나다 교민의 수가 20년쯤 뒤에는 50만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민 한사람이 각기 캐나다사회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기여하자"고 말했다.

환영만찬에 이은 각 지역 교민실태및 한인회 활동발표에서는 특히 교민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교회수가 늘고, 이에 따른 교민들의 분열및 한인회 활동에의 무관심이 공통점으로 지적됐다.(심포지엄및 총연합회 회의관계 상보 6·7일자에)

## 정치초년생의 이태은씨

## 자유당 오타와 대의원

자유당 오타와지구 대의원(Liberal Delegate to Ottawa). 이는 본지 이태은 오타와 지국장(41)이 새로 얻은 직함이다.

오는 11월 5,6일 오타와에서 열릴 자유당전국전당대회에 오타와대표로 참석하게된 이지국장은 "우리도 이제 한인사회에만 치중하지 말고 캐나다사회에 파고들어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죠"라고 정치인이 된 동기를 설명했다.

지난 20일 오타와에서 개최된 자유당오타와지구 대의원 선거에서 13명의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하킨스 변호사와 같이 대의원으로 선출된 이지국장은 정치인으로서는 초년생이다.

◆이태은씨

언론인(한국일보 오타와 지국장)과 체육인(캐나다 태권도협회 사무총장)으로서 전력을 다해온 이태은씨는 이제 자유당대의원으로 정치인의 경력이 더 붙는다. 앞으로의 포부는 물론 "캐나다 정계일선까지 진출하는 것이 목표"라는 이지국장은 가장 좋아하는 정치인은 트루도 수상이라고 했다.

이지국장은 부인 신인순 여사와 사이에 2아들을 두고 있다.

## 오타와, 수입규제 움직임

### 한국산 의류및 섬유류 제품

(토론토 4일=연합)캐나다정부는 내년에 한국으로부터의 의류및 섬유제품 수입을 줄이기 위해 곧 한국과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캐나다의 국제무역부가 밝혔다.

캐나다정부가 지난 연말경 새로운 5개년 의류및 섬유제품 수입쿼터를 정해놓은지 불과 1년도 안되어 줄이려고 움직이고 있는 것은 캐나다내의 의류및 섬유제품 제조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한국은 1억3천991만3천달러 상당의 의류및 섬유제품을 캐나다에 수출했는데 이는 80년도에 비해 약 90% 증가한 숫자이다.

의류및 섬유제품은 한국의 캐나다 총수출액중 약 30%를 차지한[illegible]

## 올해 "핼로윈 데이"

### 하루 앞당겨 토요일로

매년 10월31일로 되어있는 핼로윈·데이(Halloween Day)가 금년에는 하루 앞당겨 토요일로 변경됨으로써 메트로토론토 어린이들은 다음날 아침 등교하기 위해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폴·갓프리 메트로토론토 의회 의장은 6명의 메트로토론토 서장과 합의, 이날을 하루 앞당겨 어린이들이 다음날 학교갈 걱정없이 마음껏 즐기도록 배려했다.

핼로윈·데이를 하루 앞당기기로 한 것은 메트로 경찰이 10월31일은 섬머타임(Daylight Saving Time)이 끝나는 날이라, 밤이 한시간 빨리 오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큰 지장을 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하루 앞당기기를 건의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갓프리의장의 측근이 밝혔다.

핼로윈·데이에 어린이들은 가면을 쓰고 각가정을 방문하며, 가정들은 어린 방문자들에게 과자등을 내주곤 한다.

## 1인당GNP $11,520

## 직접세 공제후 $9,283

(오타와)캐나다의 세금공제후 평균 1인당 국민소득은 80년도의 $8,119에서 지난해에는 14% 증가한 $9,283로 최종집계되었다고 캐나다통계국(Statistics Canada)가 4일 발표했다.

개인소득세와 같은 정부가 징수하는 직접세를 공제하지 않은 평균 1인당 국민소득은 80년도의 $9,971에서 81년도에는 19.4% 증가한 $11,520로 나타났다.

세금을 공제한 가처분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은 알버타주로 80년도의 $8,927에서 지난해에는 $10,292로 증가했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80년도의 $6,164에서 지난해에는 $6,666를 기록한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로 밝혀졌다.

가정의 경제사정을 보다 현실적으로 잘 나타내주는 가구당 소득은 지난주초 발표되었는데 당시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가구당 평균소득은 80년도의 $27,579에서 $29,923로 8% 증가했으나 인플레를 감안할 때 오히려 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社 告

## 해방37년이 넘었으나 「독립관」이 없읍니다.

소름끼치는 36년간의 일본식민지 시대를 회상해서 조국은 독립기념관 건립모금운동을 벌이고 있읍니다.

일제의 설움을 같이 당했던 우리는 외국에 산다해서 이 운동을 외면하겠읍니까?

성금을 부탁드립니다.

금 액 : 다소불문
기 간 : 1982년 10월말까지
보낼곳 : 토론토한국일보사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전화 : (416)533-2361
※수표작성(Payable to…)은 The Korea Times앞.
※겉봉이나 수표에「독립기념관」기금」이라고 쓸것.
◉폐사는 일정금액이 모이면 서울본사에 송금하며 기증자 명단은 토론토 한국일보및 서울 본지에 게재됩니다.

★모금상황(10월4일 현재)
백용빈 $100
김충헌 $ 50
소계 : $150
누계 : $1,770

— 토론토 한국일보사 —

강찬영
변호사
537-3171
537-3174
484 BLOOR ST. W.
(Bloor & Bathurst)

강화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Merrill Lynch Royal Securities Ltd
금·은·증권·Bonds·RRSP에 대한 투자는
361-3428(B), 447-1374(R) : 김삼욱
CANADA SAVINGS BOND는 언제나 현금으로 찾을수 있는 가장 안전한 투자대상이 된다. 이는 매년 가을에 한번씩 발행되며, 작년에는 주문이 폭주하여 마감일을 앞당겼읍니다. 저희는 이의 구입에 일체의 수수료를 부가하지 않고 모든 문의에 무료로 봉사하고 있다.

은하 보석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난꼼화상품 대리점 귀국선물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미와 꿈의 전당"

웨딩·드레스

●백학같이 우아한 미!
●미래를 수놓은 고상한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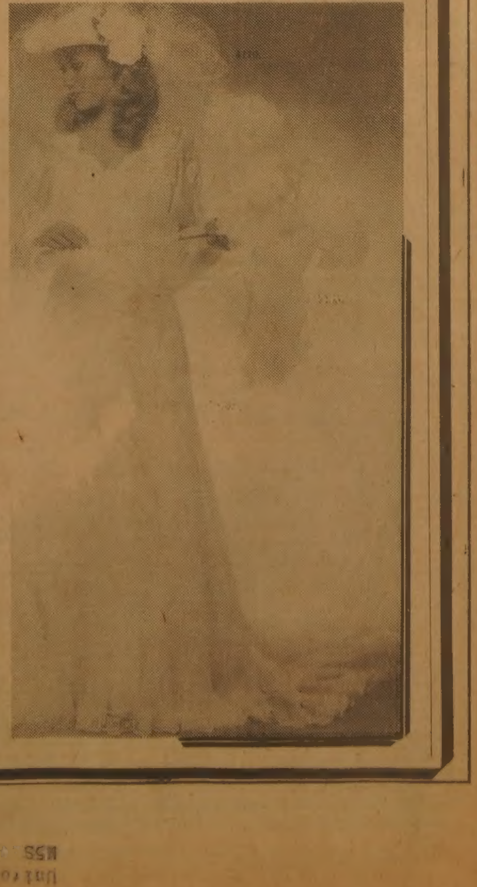
인생의 꽃다운 시절을 장식하는 최고의 환희는 젊음의 꿈이 만개하는 결혼이라 하겠읍니다.
여기 그 보람찬 꿈을 맺게하는 웨딩 드레스 가게를 차려, 이민현장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인생길로 출발하는 아가씨들의 복된날을 우아하고 품위있는 웨딩·드레스로 감싸 드리고자 하오니 한번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원장호, 실비아·원 드림

⊙웨딩·드레스 매매 또는 렌트.
⊙파티용등 스페샬 드레스 완비.
⊙꽃 어레인지먼트, 청첩장.

※결혼을 위한 처음부터 끝까지 필요하신 모든것을 제공합니다

월~목 오전8시~오후8시 금~토 오전8시~오후9시 일 12시~오후6시

1503 Bayview Ave.
(베이뷰×밀우드)south of Eglinton
☎ : 485-9419 488-0639



DEAR MAIL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플레이오프

## 밀워키 : 캘리포니아↔세인트루이스: 애틀랜타

### 토론토는 최종 4연승으로 공동 최하위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지난 5년간 지켜오던 아메리칸리그 동부조 최하위타이틀을 계속 방어했으나 금년에는 클리브랜드·인디안과 공동최하위를 기록, 토론토야구팬의 환호를 자아냈다.

3일 익시비션스타디엄에서 열린 시애틀과의 블루제이스 마지막게임에 모인 19,064명의 토론토야구팬들은 토론토가 시애틀을 5:2로 물리치고 모든 시즌을 끝내자 마치 우승이나 한듯이 박수를 치고 깃발을 흔들면서 환호했다.

금년초 보비·콕스신임감독을 맞은 블루제이스는 선수 실력이 향상, 투수면에서 데이브·스티브가 17승을 올렸고 마지막게임의 승리투수 짐·클랜시가 16승을 올림으로 메이저리그 A급 투수대열에 끼었고, 세켄트베이스맨 다마스·가시아는 타율 0.310으로 아메리칸리그 톱타자대열에 끼게 되었다.

물론 블루제이스는 금년에 78승84패(승률 0.481)로 최하위였으나 클리브랜드를 공동최하위로 끌어내렸고 전년도 리그우승팀 뉴욕 양키스와도 1게임밖에 뒤지지 않았다. 26개 양리그전체에서 순위는 17위, 내년에 블루제이스팀의 활약을 다시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3일로써 모든 메이저리그 정기스케쥴은 끝나고 리그 두개팀씩 각조 우승팀이 결정됐다.

아메리칸리그는 동부에 밀워키·브루어스, 서부에 캘리포니아 앤젤스가 우승했다.

내셔날리그는 동부에서 세인트·루이스·카디널스, 서부는 애틀랜타·브레이브스가 각각 우승을 차지, 리그우승및 월드시리즈 우승팀을 가리는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

금년도 플레이오프 진출팀의 특색은 최근 수년간 우승전선에서 전혀 인연이 없었던 팀들로 대폭 바뀌었다.

블루제이스가 낀 아메리칸리그 동부조는 전년도 우승팀 양키스의 몰락으로 (4위) 밀워키와 볼티모어가 마지막 우승을 다투는 경기에서 밀워키가 10:2로 승리, 아메리칸리그결승전에 진출했다.

아메리칸리그 서부조에서 양키스의 레기·잭슨등을 새로 맞아 선수층을 대폭 개편한 캘리포니아·앤젤스가 초반부터 독주, 우승을 차지했다. 80년도 리그우승팀 캔사스시티가 마지막에 따라붙었으나 역부족이었다.

내셔날리그 동부조는 중반까지는 우승팀을 알기힘든 혼전이었다. 79년도 월드시리즈 패자 피츠버그·파이렛츠, 80년도 패자 필라델피아와 금년초 라스베가스 도박사들이 최고의 확률로 우승후보로 지목하던 몬트리얼·엑스포스가 최종 우승팀 세인트·루이스와 물고 물리는 혈전을 거듭했으나 리그종반에서 세인트루이스가 부상, 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서부조에서는 81년도 월드시리즈우승팀 LA다저스가 끝까지 애틀랜타와 우승을 다투었으나 결국 애틀랜타에 우승권을 넘겨주고 말았다.

어떻든 5일부터 이달말까지 계속될 메이저리그의 플레이·오프는 야구팬들을 TV앞에 잡아놓게 됐다. 토론토에서는 CTV(Ch.8)을 통해 전경기를 볼 수 있다. 자동차를 타는 중에는 1430 CJCL로 다이얼을 맞추면 들을 수 있다.

◆굳바이 블루제이스: 금년에도 아메리칸리그 동부조에서 최하위를 차지했으나 팬들의 성원은 뜨겁기만 하다. 블루제이스 프로야구 전체순위는 17위.

### 플레이오프 시간표

아메리칸리그

밀워키←→캘리포니아

| 날 짜 | 장 소 | 시 간 |
|---|---|---|
| 5일 | 캘리포니아 | 8 : 25P.M. |
| 6일 | 캘리포니아 | 8 : 15P.M. |
| 8일 | 밀 워 키 | 3 : 15P.M. |
| × 9일 | 밀 워 키 | 1P.M. |
| ×10일 | 밀 워 키 | 4 : 20P.M. |

(×—초반 경기결과에 따라 개최됨)

(전게임 CTV와 CJCL래디오(1430)으로 중계됨)

내셔날 리그

세인트·루이스←→애틀랜타

| | | |
|---|---|---|
| 6일 | 세인트·루이스 | 3 : 15P.M. |
| 7일 | 세인트·루이스 | 3 : 15P.M. |
| 8일 | 애 틀 랜 타 | 8 : 25P.M. |
| × 9일 | 애 틀 랜 타 | 8 : 15P.M. |
| ×10일 | 애 틀 랜 타 | 8 : 15P.M. |

## 햄총장방한

### 서울대 초청

(토론토4일=연합)토론토대학교 총장 제임스·햄 박사는 서울대학교 초청으로 한국방문, 서울로 향발했다.

2일부터 8일까지 방한기간중 햄박사는 서울대학교 주최 「대중사회 속에서의 대학」이라는 주제의 국제회의에 참석, 연설하기로 되어 있으며, 이규호 문교장관및 학계인사들과 만나 토론토대학내의 한국학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토의할 예정이다.

햄박사는 한국을 방문하고 귀국하는 길에 중공을 방문할 예정이다.

# 밀입국자 안내원 계정희씨 벌금

## 미국 입국도 못한채 캐나다서 체포돼

### 블로아 교민들에 피해 많아

지난 9월중순 토론토교포 계정희씨는 몬트리얼법원으로부터 9백달러 벌금형을 받았다.

이유는 불법체류자들을 미국으로 불법입국시키려했고 그댓가로 돈을 받은 점, 또 전에도 같은 행위를 한 일이 있음이 드러난 때문이었다.

본사 조사에 의하면 지렁이잡이 밴트럭을 운전하는 계씨는 8월말께 밴트럭에 4명을 태우고 몬트리얼 근교 미국 국경을 넘으려 했으며 전에도 비자 없는 사람들을 미국에 입국시킨 사실이 차속에서 나온 휘발유 영수증등으로 밝혀졌다.(주거가 불확실한 계씨는 금년봄에도 한국에 다녀왔으며 특히 블루어·스트릿 상가에 외상값등을 많이 남긴 것으로 소문났다.)

계씨가 태운 4명은 몬트리얼의 도발공항 근처 홀리데이·인에 수용됐다가 추방령을 받고 이중 3명은 한국으로, 1명은 알젠틴으로 쫓겨났다. 알젠틴 여권을 가졌기 때문에 알젠틴으로 추방된 청년은 3년전 본국의 형님과 동시에 캐나다땅에 도착, 그간 정착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아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는 길이었다. 오래동안 떨어져 살다가 캐나다에서 잠시 같이 산 이 형제는 각각의 길로 추방직전 서로 부둥켜 안고 목놓아 울었다고 당시 현장에 있던 이민국 직원들이 말했다.

계씨의 경우인지는 불분명하나 미국 입국희망자들에게서 5백~1천달러씩 받은 알선자들은 이들을 캄캄한 밤중에 미국·캐나다 국경선 근처에 풀어놓고 자신은 뺑소니친 수법도 있었다.

알려진 또 다른 케이스는 여권이용법. 알젠틴이나 볼리비아등 남미교포로부터 여권을 2~3백달러씩 구입, 이를 한국서 2~3백만원씩 받고 판다.

여권구입자는 캐나다비자를 정식으로 얻어 캐나다에 온다. 이들이 토론토공항에 도착하면 공항서 블루어·스트릿까지 데려다 주는데 50달러씩 또 받아낸다.

캐나다에 와서 이민이 되거나 미국으로 건너가면 모르나, 그렇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그늘 속에서 기약없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최근 체포된 K씨나 계씨 외에도 5~6건이 미국과 캐나다에서 적발되어 재판을 받았다. 이중에는 불법체류자들의 상황을 동정, 인정에 끌려 미국가는 길에 데려다주다 체포된 사람도 있다.

사건 보고를 받은 토론토총영사관은 "캐나다의 한국교포 이미지가 이런 일로 손상되고 있다. 실제로 국경에 있는 미국 이민관들은 한국인에 대한 입국검사를 좀 더 강화한 것으로 안다"고 우려했다.

'불법체류자들이 어떤 경로로 캐나다에 왔건간에 일단 자진 귀국하면 한국정부는 문제삼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체류 비자기간이 만료됐거나 기타 비합법적으로 이곳에 있는 한국인들은 귀국하기를 바란다"고 영사관측은 말했다.

미국의 경우 여행자든, 상용이든, 일단 합법적으로 입국하면 변호사등을 통해 미국이민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아무 근거없이 밀입국한 사람들의 영주권취득은 극히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서는 호송되오는 외국으로부터의 추방자에 대해서는 여권법위반으로 문책한다.

【유】

## 영어를 "빨리 정확히 읽자"

### 메트로도서관 15시간코스

어떻게 하면 영어책을 보다 빨리 읽을 수 있을 것인가.

내용을 잘 파악하면서 빨리 읽는 법을 배우는 속독강의가 메트로·토론토 도서관(789 Yonge St. & Bloor)에서 열린다.

고교 교사나 대학생 혹은 읽을 거리가 많은 직업인들을 위한 이 강의는 (1)독서속도를 저해하는 나쁜 습관을 없애고 (2)단어를 하나하나 읽는 대신 그룹으로 읽게 하며, (3)집중력을 개발, 빨리 읽으면서 내용을 놓치지 않으며, (4)읽은 내용을 오래 기억토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강의는 주 1회 5주간 총 15시간이며 신문, 잡지, 소설, 교과서등을 읽는 법을 연습한다. 강의료는 1코스에 $125이다.

10월7일(목), 10월26일(화), 11월3일(수) 하오 6시 각각 개강되는 속독강의에 대한 문의는 827-1239

# 짜장면330그릇 판매

## 한인장로 한인회관 건립협조

토론토한인장로교회(목사 박희민)는 산하 사회위원회 주최로 토론토한인회관 확장이전 모금을 위한 짜장면 1일식당을 개설, 판매했다.(본보 9월30일자)

지난 3일 주일예배후 하오1~3시반 동교회 강당에서 실시된 짜장면 판매량은 330그릇, 그중 동교회 신자들이 310그릇, 내빈이 20그릇을 소비했다.(한그릇 $3,50)

짜장면은 배형도 사회위원장 부인을 비롯, 4명의 위원부인들이 수일간 밤잠을 줄여가며 마련했으며 판매당일 주방일은 서혜서 여선교회장이 진두지휘했다.

주최측은 당초 1천그릇 판매목표를 세웠었다. 이날의 판매고중에서 재료값을 공제, 잔액을 한인회관 기금으로 기탁한다.

동교회에서는 지난5월 학생회가 김밥을 만들어 판매, 약 $350을 한인양로원 건립기금으로 회사한바 있다. 이외에도 작년 가을 청년회의 헌신예배의 헌금 $100를, 작년 겨울에는 여선교회 바자 수익금 $500를 역시 양로원건립기금으로 회사했다.

## 모교고기 도착

### 동국대학교동문회

동국대학교동문회(회장 정광풍)에 서울 모교로부터 고기가 보내왔다.

천윤기 고문에 따르면 오는 11월27일 인·온·더·파크에서 열리는 동회 성탄파티에서 동문회에 대한 고기 전달식이 거행된다.

구독 신청은
TEL : (416)533 · 2361

◆짜장면을 팔아 한인회관 건립기금을 모은 한인장로교회 여신도들과 조한철 회관모금위원장.

## 성인미술교실 개강

### 삼우스튜디오 장연탁씨

토론토 시내 블루어·웨스트에서 미술실 Sam Woo Studio(58 Wade Ave.)를 경영하고 있는 조각가 장연탁씨가 성인미술교실을 개강한다.

10월6일(수) 개강, 수강자를 수시로 접수하며, 초보자를 위한 개인지도및 기성작가 지도를 겸한다.

강의는 매주 3일 수·목요일은 하오7~9시 인체뎃상(착의 혹은 누드), 토요일은 상오10~하오2시 조소·조각(Modeling or Carving)을 가르친다.

서울대학 미대 출신으로 O.C.A(온타리오미대)및 이태리 유학도 거친 장연탁씨는 조각 개인전, 합동전등 10여 차례 전시경력이 있다.

연락처: 537-7630(스튜디오), 536-1908(R)

## 정치망명? 유괴?

### 중공 테니스선수 후나·미스테리

일련의 중공의 유명인들의 미국망명극이 CIA(미중앙정보국)의 음모일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미국 테니스계에 나돌고 있다.

지난 6월 남자무용수 존·웨이·링이 미 순회공연중 망명을 요청한데 이어 장래가 유망한 테니스선수 후·나가 테니스대회(페더레이션컵) 참가중 지난 20일 잠적, 1주일후 대리인을 통해 망명을 신청했다. 19세인 후·나는 아직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는데, 『정말 정치망명일까? 아니면 유괴일까?』라는 의문을 낳고 있다.

테니스선수의 망명은 나브라틸로바의 예가 있기 때문에 신기한 일은 아니다. 나브라틸로바는 상금문제로 체코테니스협회와 불화중 지난 74년 미국에 망명, 지난해 시민권을 받았다.

나브라틸로바는 18세였던 당시 이미 세계적인 선수로 다량의 상금을 획득했는데, 대부분을 체코테니스협회에 바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때문에 사이가 나빠졌으며, 체코는 이 사실을 폭로하는 나브라틸로바의 행동을 제한하기에 이르렀었다.

후·나에게는 나브라틸로바의 경우같은 정치망명을 하지 않으면 안될 필연성이 결여돼 있다는 것. 후·나는 1m70 이상의 장신으로 지난해 멕시코의 한 국제대회서 우승했고, 이번 패배, 1회 대 일본전에서 맹활약한 전적은 있지만 장래는 미지수라는 것. 그런 후·나가 테니스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망명했다는 나브라틸로바의 경우와 다르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브라틸로바의 망명이후 대부분의 공산권 국가들은 상금의 80% 이상을 본인에게 돌려주고 있다.

더구나 영어를 잘 못하는 후·나이므로 혼자서 망명의사를 결정하기는 어려웠을 거라는 추측이 지배적이다. 고국을 버릴만한 뚜렷한 이유의 결여라는 점에서 그녀의 망명은 의심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CIA가 후·나의 망명을 획책했다는 루머도 믿기 어려운 점이 많다. 미·중공의 외교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이 한 어린 선수의 망명이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 ◆정 정◆

지난 4일자 「독립관 모금에 활력소」 기사중 $1천 회사자 "최덕량씨"는 "최동용씨"로 바로잡습니다.

## 교사연수회

### 한맘학교, 3일간

토론토의 한맘한글학교(교장 허영식)와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한 연수회가 2박3일 일정으로 뉴마켓의 샤론 묵상의 집에서 열린다.

오는 8일(금) 하오7시30분에 시작, 10일(일) 하오6시에 끝나는 이 연수회는 한글교육에 관한 교사교육과 성경및 예전(미사등 교회예식)에 관한 종교교육 지도요령과 지식등 강의가 있을 것이며, 강사는 최규식 신부, 파더·테리등이다.

개업 5 주년기념

특별세일

멋과 품위
기쁨주는 생활환경!

MODERN FURNITURE
ecosys
2300 YONGE ST. TORONTO (In Yonge-Eglinton Centre)
☎ : 486 — 0397
김 만 구

# 벌금형대신 징역형 위주

## 고등법원, 교통사고 사망시

음주운전자가 과실로 하이웨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자를 발생케 할 경우 벌금대신 적어도 6개월간의 징역형을 받게될 것같다.

주최고법원인 온타리오 고등법원은 최근 음주운행으로 하이웨이상에서 사고를 일으켜 2명을 죽게한 토론토의 사설조사원 퍼시·아놀드·팍스(35)씨에게 1,000달러의 벌금대신 6개월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직 주정부경찰관인 팍스(욕밀·로드 거주)씨는 엘리온호수부근 하이웨이상에서 술에 취해 핸들을 잘못 돌려, 2명의 제설작업중이던 일꾼을 치어 죽게 한 혐의로 위험운전으로 기소되었었다. 위험운전은 형사범으로 형법에 최고 2년의 징역형을 받게 규정되어 있다.

팍스씨는 사고직전 저녁식사때 포도주 3잔을 마셨다고 밝히고, 자기차 앞자리 바닥에 놓여있던 그의 빈 보드카 술병에 대해서는 아는바 없다고 거부했다.

팍스씨에 대한 혈액검사결과 사고당시 혈액·알콜수치가 120~140으로 기록되었는데, 형법에는 이 수치가 80이 넘을 경우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혈액-알콜80이란 혈액100리터당 알콜이 80미리리터 포함되어 있다는 뜻임)

당초 레이·스토니티 판사가 팍스씨의 정상을 참작하여 1,000달러의 벌금형을 내렸는데, 고등법원은 이를 번복, 6개월의 징역형을 내렸다.

고등법원 판사들은 "사망이 뒤따르는 형사범죄에 대해서는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을 내려 형사사건의 발생을 줄이는 것이 타당하므로 팍스에게 벌금형대신 징역형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 말다툼 끝에 남편을 살해

(상항지사)교포부부가 심한 말다툼끝에 부인이 남편을 권총으로 사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25일 새벽2시께 1012 포스트 스트릿에서 「S&B」 그로서리및 리커스토어를 경영하는 임친관씨가 부인 함기석씨와 심한 언쟁을 벌이다 부인이 쏜 권총에 맞아 숨졌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 부부는 이혼하고도 동거중으로 이날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함씨가 갑자기 가게안에 있던 38구경 권총을 꺼 ; 그대로 5발을 난사, 임씨는 머리에 1발등 몸전체에 총격을 받고 절명했다.

상항경찰국 케니수사판에 의하면 임씨는 정면에서 머리에 맞은 1발이 치명적이었다고 말하고, 정확한 사인은 부검후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씨는 현재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중이다.

## 교 민 동 정

◆김세정(채소가게 경영)=지난 27일 쉐퍼드·멀 안에 있는 가게를 $17만에 인수했다. 주매상은 $8천, 권리금이 비싼 듯했으나, 영업시간이 짧고 발전성있는 가게라, 마음에 들어 그대로 샀다고. 김씨는 빈손으로 이민와 5년만에 가게 2개를 소유하고 있는 성실한 비지네스맨으로 알려지고 있다.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 (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영구구독: $50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새로 개업한
서울식품 서부지점
※좋은 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배추김치·총각김치·파김치·부추김치·오이소백이전문.
1391 WESTON RD
☎: 243-9544

훼밀리·닥터 (의사 왕운린)
(B 968-1543. R 363-9196)
600 SHERBOURNE ST. #402
토: 오전11시~오후3시
월~금: 오전10시~오후7시

三國志 473
글·高羽榮·그림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게 · TV판매
☎ 532-0210 손병헌

<시>

## 입자론 (粒子論)

이정원 (문협회원)

헐렁한 묵념의 띠
뚜벅 뚜벅
탁한 건강이 걷고 있다.
곤한 애정은
한바탕 불편을 앞세운다.
보이지도 않는 곳에 널려 있을
냉정한 계단,
잠이 오기 시작한다.
오는 잠은 걷어차지만
함지박은 덩그러니
비에 젖은 모양이다.
여섯 손가락의 팔은
사방에 꽃답게 널려 있고,
마지막 그늘을 물어뜯곤 하던
입자(粒子)는
건드령
모양조차 잃고 만다.
대성(大成)하여 덤벼드는
관념의 꼬리
관념의 불빛
슬픈 입자는
잠을 청한다.

◆최초의 여자선수입단—밀워키 주노 하이스쿨 풋볼팀의 라인맨 잭슨은 5피트9인치, 1백85파운드의 체격으로 어느선수 못지않게 터프하고 강인하다. 한가지 특기할 점은 15살 고교2년생인 잭슨은 퍼스트네임이 주디, 최초로 입단이 허용된 여자풋볼선수라고. 〈밀워키〉

# 第5의 사나이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80>

金聖鍾작

## 얼굴없는 死者 ④

### "밤낮없는 搜査" 지시에 수사관들은…

『그건 왜 그렇지?』

대머리가 움직임을 멈추고 물었다. 모두가 말석에 앉아있는 사나이를 바라보았다.

말석의 사나이는 좀 멋쩍은 표정이다가 말을 이었다.

『수하물 탁송은 낮에만 가능합니다. 수하물 접수는 아침9시에서 저녁6시까지입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밤에도 접수합니다만 일반수하물인 경우에는 낮시간에 접수를 끝냅니다. 범인은 낮에 시체를 유기할수 있는 방법으로 열차를 이용한것입니다. 수하물로위장해서 부쳐버리면 가장 자연스럽게 시체를 유기할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듣고 보니 그렇군. 그런데 왜 여러 곳에 분산시켰지?』

『자기 딴에는 수사를 어렵게만들려고 그랬겠지요. 한 곳에 몰아 보내기 보다는 여러 곳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했겠지요.』

대머리는 말석의 사나이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자네는 지금 어디서 근무하고 있지?』

『여수에 있읍니다.』

말석의 사나이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마흔 안팎으로 보이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비교적 젊어보이는 사나이였다.

『그곳 책임자인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는 몸이불편해서 못오셨읍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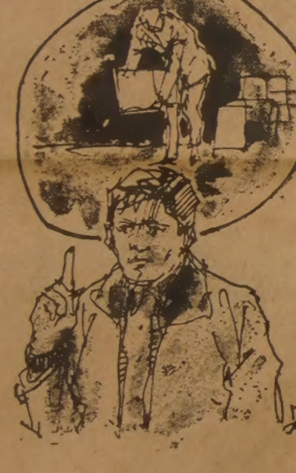
『아, 그래. 아무튼 좋아.』

대머리는 장방형의 테이블에 둘러 앉아 있는 사나이들을 둘러보았다.

『어떻게들 생각하나? 난 아무래도 후자 쪽에 마음이 기울어지는데…』

『네, 시체를 손 쉽게 유기할수 있는 방법으로 열차탁송을 이용한 것 같습니다.』

부산쪽의 사나이가 동의를 표시하자, 나머지 사나이들도 모두 머리를 끄덕였다.



朴男 그림

『궁지에 몰리면 사람은 얼마든지 잔인한 짓을 저지를 수 있읍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말입니다.』

말석의 사나이가 한 마디 덧붙였다.

『수하인들에 대한 수사결과는어떤가?』

대머리가 사나이들을 둘러보며 물었다.

『모두 가짜입니다.』

대전쪽 사나이가 나서서 말했다.

『발송자의 주소와 이름은 하나지만 수하인의 주소와 이름은 모두 다릅니다. 그렇지만 하나같이 모두 가짜입니다.』

그는 각 수하인의 주소와 이름을 적어 놓은 종이를 대머리에게 내밀었다.

『보나마나겠지.』

대머리는 그것을 거들떠보지도않고 말했다.

그는 센터의 수사요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렸다.

『각지역 책임자들은 집에 돌아갈 생각 하지 말고 이번 사건을 함께 해결해야겠어. 최단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줘.』

사나이들은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 이제부터 집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범인을 찾아 밤낮으로 뛰어야한다는 사실이 그들의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캐나다한인총연합

# 대한부인회바자회

일시 : 1982년10월16일(토)
상오11시~하오4시
장소 : 한인장로교회
(1183 Davenport Rd. Tor.)

품 목 : 떡종류, 된장, 고추장, 빈대떡, 밀반찬 젓갈 등등…
식 사 류 : 곰탕, 진주비빔밥(각 $3)
복 권 : 1장 $3.00
복권상품 : 1등—편물로 짠 이불1개 • 2등—흑백TV
3등—장미쌀 50LB • 4등~10등—장미쌀 25LB.
문의처 : 494-1856(양혜신)

●노래자랑도 있으니 많은 분들이 오시어 출전해 주십시요.
●각 교회의 교우여러분은 나오셔서 저희 대한부인회를 도와 주시고
*무엇이든지 갖고 오셔서 매매 하실분. 환영합니다.

캐나다한인총연합 대한부인회 회장 양혜신외임원일동삼가

# 大入 3志望허용·減點없애

# 人氣科집중 예상

## 서울大 1志望서 70%선발

## 70개大 科別·27개大 절충식모집

### 내년 신입생 모집要綱 확정

문교부는 30일 전국97개대학의 83학년도신입생모집요강을 확정발표했다. 이 요강에 의하면 거의 모든대학이 3지망을허용하고 학과별모집의 경향을 띠고있는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전국 97개대학중 70개대학이 학과별로 모집하고 27개대학은 계열및 학과별 절충식으로 모집한다. 복수지망의 경우 35개 전문대학을 포함, 52개대학이 3지망을 허용했으며 37개대학이 2지망을, 가톨릭대등 규모가작은 8개대학만이 단일지망제를 채택했다.

복수지망에따른 사정방법은 慶北大등48개대학이 1지망자에서 1백%선발하되 미달할때만 2·3지망자로 충원하며 1지망에서 90%를 선발하는대학이 高麗大등 5개교, 80%를 선발하는 대학은 釜山大등 21개교, 70%를 선발하는대학은 서울大등 9개대학이다.

금년까지 몇개대학에서 실시했던 2~3지망자에 대한 감점제는 내년도부터 완전히 없어졌다.

이같이 전국의 중요대학들이 감점제를 채택지않고2~3지망자에 대한 수용의폭을 늘려 잡고있어 이른바 일류대학의 인기학과는 지원자가 집중되는 현상이 생길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비인기학과의 미달현상과함께 고득점자는 학과선택의 어려움이 없는 반면 중득점자들은 학과선택을 위해 올해보다 치열한 눈치작전이 심해질것으로 보인다.

입시요강은 이밖에 예년의 눈치작전과 원서접수 창구의 비교육적 현상을 없애기위해 원서를 통일시켜 각시도교위에서도 일괄구입할수 있도록하고, 컴퓨터 사정을 할수있는 대학은 원서에 학력고사 점수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도록해 특정대학의 원서판매숫자, 합격권의 점수등 입시정보를 알수없도록 제도적장치를 해놓았다.

**內申30%반영 많아**

[내신반영] 내신성적반영 비율은 30%반영이 77개대학으로 가장 많고 가장높게 반영하는 대학은 40%로 淸州사대 三育大 韓신大등 3개대학이다. 서울大는 동일계의 경우 30·2%에서 32·7%, 타계열은 32%에서 32·8%로 다소 높아졌다. 대부분의 대학이 동일계에 지원할 경우 10%이하의 학력고사점수를 가산해준다.

[접수및 면접] 원서접수 마감은 전국의 모든대학이 83년1월12일 하오6시로 통일시켰다. 우편접수는 당일 하오6시까지 도착해야한다. 면접시간은 대학별로 자율에맡겨 전후로 각각 다르다.

[반응] 일선고교는 내년도의 경우 예년과 달리 사전에 충분한 입시정보를 얻을수없는데다 학과별 모집경향이 더욱 뚜렷해져 지원자들의 학과선택에 큰애로를겪게됐다. 특히 이른바 명문대학의 인기학과를 선택하는경우 웬만한 자료를 찾느라 일선학교 한정수로는 곤란해지게 됐다 따라 진학지도와 상담에활용 애를태우고있다. 진로지도 교사들은 벌써부터 각대학측은『인기학과에로의 집중현상과 비인기 학과의 미달이 예상된다』고 말하고『명문대만 우수학생을 쉽게 확보할수있게 됐다』고 전망했다.

## 全대통령,「국군의날」談話

# "北傀 南侵기도 常存

## 힘없는나라가 외치는平和는 '空虛'"

全斗煥대통령은 1일『최근 北韓공산집단은 攻勢위주의 火力과 기동력을 증강하고 非正規戰능력의 향상에 주력하면서 그들부대를 平壤-元山線以南, 특히 서부지역에 집중배치하는등 심상치않은 동향을 보여주고있다』고 지적하고『이와같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국민과 정부, 軍이 혼연일체가돼 一絲不亂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굳건한 國力신장을 도모하는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제34주년『국군의 날』을 맞아 談話를 통해 이같이 강조하고『北韓공산집단이 힘의劣勢를 自認하고 우리의 평화통일노력에 호응해올때까지 강력한힘의 유지를 위한 우리의 精進은 조금이라도 늦추거나 머뭇거릴수가 없는것』이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또『힘없는 나라가 외치는 평화에의 절규가 메아리없는 외침밖에 되지못한는 오늘의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는 이땅에 다시는「침략」이라는 用語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의 태세를 가다듬어 나가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말하고『우리가 아무리 침략을 반대하고 전쟁을 혐오한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우리의 뜻을 따르지않거나 우리의 능력을 誤判하는 이상 침략과 전쟁의 가능성은 항상 도사리고 있다고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 美F16 50臺 日本土배치

## 蘇極東軍증강에 대처…11년만에

【東京=聯】 미국은 소련의 대폭적인 극동군증강에 대한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일본본토의 미사와(三澤)공군기지에 약50대의 최신형F16전폭기로 구성된 2개비행대를 처음 배치키로 결정하고 일본측의 의사를 타진중에 있으며 일본정부도 이를 받아들일 방침인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신문들은 30일 美日국방장관회의에 참석하기위해 미국을 방문중인 이또(伊藤宗一郞)일본방위청장관은 30일(현지시간) 와인버거美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F16기의 일본기지내 배치허용방침을 전하게 될것이라고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 民正, 黨政회의서 秋穀수매 增加요청

정부와 民正黨은 29일하오 중앙청 후생관에서 黨政정책조정회의를 갖고 금년도秋穀 收買문제등을 협의했다.

이날회의에서 秋穀收買가격보다 收買量책정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는데 民正黨측은 수매량을 늘려줄것을 요구한데대해 정부측은 재정형편을 이유로 難色을표한것으로 알려졌다.

## 資源관리法案 의결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資源관리법을 제정키로의결, 효율적인 人的 物的 자원관리와 필요시에 대비키위해 전국적이나 지역적으로 또는부문별로 훈련을 실시할수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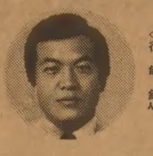
# 独立紀念館건립誠金

## 우리의 작은精誠… 큰뜻 이루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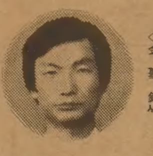
<30일접수> 접수電話 722-4171

**南大門市場(株)** (李根澤 사장 건물주·商人) **4천6백2만원**

**東一紡織家族** (東一紡織·레나운 트레이딩·東染 니트·東榮染) (代表 徐敏錫) (임직원 일동) **1천9백57만원**



◇徐敏錫씨



◇金聖鎬씨

◇李禎薰씨

◇鮮于塡씨

**眞露쥬리아사업본부임직원 3백71만원**

**光熙中學校 金宗玉교장 外 2백2만원**

**倉洞製紙(株) 金聖鎬대표 外 1백43만원**

**서울사근국교 박동은교장 外 1백26만원**

**(株)세원상역 盧炳達대표 外 1백21만원**

**眞亞交通(株) 임직원·勞組員 1백13만원**

**東明産業(株) 金璿培대표 外 1백6만원**

**서울중앙라이온스클럽 1백2만원**

**海剛高麗青磁研究所 1백만원**

**韓榮電子(株) 朴勝燁대표 外 74만원**

**(株)東邦鋼建 鮮于塡대표 外 50만원**

**한양쇼핑센터 생활도자기 娥廊 5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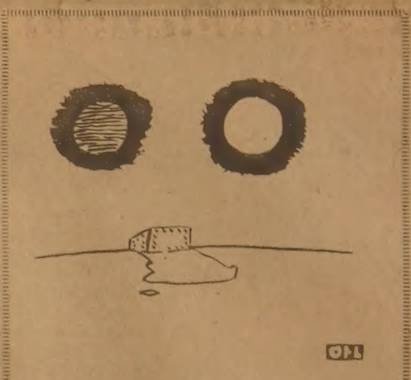
◇南大門市場(株) 李根澤사장外建物主및 商人一同 =4천6백2만원 (以下內譯)

▲南大門市場(株) 대표이사외 임직원一同=2백2만2천6백원
▲大都綜合商街地主會長 李炳在씨外 地主一同=1백28만원
▲E棟地主회장 宋允一씨외 地主일동=1백20만원
▲F棟地主일동=1백만원
▲東南建物公社 朴連夏씨外 一同=1백만원
▲中央商街(C棟) 地主會이사장 李應식씨外 地主일동=62만원
▲南倉建物 白鳳珪씨=50만원
▲中央빌딩 吾應俊씨=50만원
▲明商事 具明書씨=50만원
▲청자상가 建物主一同=50만원
▲남시약국代表 정인환씨=40만원
▲本棟商街새마을分會=2백50만8천원 (분회장俞수龍씨=10만원, 회원一同=1백75만8천원, 신신상회 이응순씨=10만원, 남전상사 김전우씨=10만원, 대돈상회 김도선씨=10만원, 강원집 배구경씨=10만원, 金碩春씨=5만원, 변정안씨=5만원, 동방식품 이근호씨=5만원, 풍아상회 이윤오씨=5만원, 水協直賣場 설주석씨=5만원)
▲E棟地下새마을分會=2백23만6천원 (분회장 金德根씨=5만원, 회원一同=1백78만6천원, 131호 박정희씨=20만원, 98호 설복태씨=10만원, 135호 김원길씨=5만원, 166호 김종옥씨=5만원)
▲대도마케트새마을分會회원一同=2백10만원
▲대도마케트새마을分會 태신사 이강호씨=5만원
▲C棟地下새마을分會회원一同=1백84만1천원
▲1번가새마을分會회원一同=1백84만1천원
▲대도아케이트새마을분회회원一同=1백65만3천5백원
▲대도상가새마을분회장徐承遠씨=20만원, 同회원一同=81만9천원
▲대도상가오르라金斑梅씨=50만원
▲C棟2층새마을分會회원一同=1백41만원
▲포키아동복새마을分會회원一同=1백40만원
▲원아동복새마을分會회원一同=1백38만원
▲뽀삐아동복새마을分會회원一同=75만5천원, 同分會까치사 박석범씨=30만원, 同分會리브리표상도씨=10만원, 同分會라이플이종수씨=10만원, 同分會산사우종용씨=5만원, 同分會아폴로김근덕씨=5만원
▲부르뎅아동복새마을分會회원一同=1백20만원
▲마마아동복새마을分會長金英男씨=10만원, 同회원一同=1백7만5천원
▲대도숙녀복새마을分會회원一同=90만5천원
▲D棟地下새마을分會회원一同=80만원
▲남도종합상가새마을分會회원一同=75만5천원
▲C棟1층새마을分會회원一同=72만6천9백원
▲유성상가새마을分會회원一同=72만5천원
▲새마을상가새마을分會회원一同=60만5천원
▲한영상가새마을分會회원一同=60만2천원
▲D棟2층새마을分會회원一同=54만원
▲대도2층새마을分會회원一同=50만원
▲D棟1층새마을分會회원一同=47만7천원
▲D棟3층 새마을分會 分會長 李大熙씨=5만원, 同회원一同=23만4천원
▲고려상사 새마을分會회원一同=28만원
▲C棟3층 새마을分會회원一同=21만7천원
▲청자상가상인一同=50만8천원
▲대도꽃도매상가상인一同=80만원
▲케네디상가상인一同=35만원
▲대도소아복상가 상인一同=17만6천원
▲세원빌딩건물주 한장화씨=30만원
▲퇴계로동산구상인一同=30만원
▲남문상가건물주및 상인一同=30만원
▲케네디상가건물주 이성재씨=20만원
▲일호상가건물주 방효숙씨=20만원
▲임꼬상가건물주 엄영환씨=20만원
▲세창빌딩건물주 김영배씨=20만원
▲대륜빌딩건물주 김덕윤씨=20만원
▲고려상가건물주 황구섭씨=20만원
▲크로바상가건물주 김일순씨=20만원
▲남대문극장 대표=20만원
▲풍국농원대표 이기택씨=20만원
▲대종상가건물주 오원종씨=20만원
▲양경환씨, 박경식씨=20만원
▲남창새마을상우회원一同=16만원
▲동양상가건물주 김창갑씨=15만원
▲삼호마케트상인一同=15만원
▲남문산악대표 임찬구씨=12만원
▲D棟4층상인一同=10만2천원
▲부르뎅아동복상가 지주 김진석씨=10만원
▲미복사 대표 박동호씨=10만원
▲대도분재상인一同=10만원
▲궁전다방 조전용씨=10만원
▲은날개상가 강병원씨=10만원
▲유송상사유운희씨=10만원
▲삼천리상가 장광덕씨=10만원
▲삼천리상가 최영철씨=10만원
▲케주업상가一同=10만원
▲케주업상가상인一同=10만원
▲창전물산 김기식씨=10만원
▲희구약국대표 조용우씨=5만원
▲조한영상가 조헌천씨=5만원
▲양다방건물 오정훈=5만원
▲6백만물상가 진성문씨=5만원
▲신삼천리상가 이경우씨=5만원
▲기타상인17명=34만6천원 (以上南大門市場分)
▲東一紡織(株) 대표이사 徐敏錫씨外 임직원일동=1천2백32만3천1백50원
▲東一레나운(株) 대표이사 李範景씨외임직원一同=3백82만5천9백50원
▲(株)東一트레이딩 대표이사 李昞薰씨外임직원一同=63만8천8백73원
▲(株)東一니트 대표이사李在燮씨外임직원一同=75만4천3백원
▲(株)東染 대표이사 金斗基씨外임직원一同=1백19만7백25원
▲東榮(株) 대표이사 金基錫씨外임직원一同=74만3천82원
▲(株)眞露쥬리아사업본부 임직원一同=3백71만9백56원
▲光熙中學校 (교장金宗玉) 교직원및학생一同=2백2만원
▲倉洞製紙(株) 대표이사 金聖鎬씨外임직원一同=1백43만4천3백원
▲서울사근국교 (교장 박동은선생) 전교생 (대표 6년 이경식·임재환·인솔 남영자선생) 및 교직원일동=1백26만9천7백50원【소년한국일보접수】
▲(株)세원상역 대표이사 盧炳達씨外임직원一同=1백21만3천5백원
▲眞亞交通(株) 임직원및 勞組組合員一同=1백13만7천3백30원
▲東明産業(株) 대표이사 金璿培씨外 임직원一同=1백6만5천원
▲서울중앙라이온스클럽 회장李禎薰씨外 회원一同=1백2만원
▲海剛高麗青磁研究所 대표 柳光烈씨外직원一同=1백만원
▲韓榮電子(株) 대표 朴勝燁씨外임직원一同=74만원【金泉지국접수】
▲(株)東邦鋼建 대표이사 鮮于塡씨外임직원一同=50만2천2백70원
▲娥廊亭洞 한양쇼핑센터 생활도자기娥廊=50만원

## 韓·中文化교류 書道大展개막

8일까지 오늘 하오3시…世宗문화회관전시실

## 社會漫評



明月과 暗月과…

## 古代史 공동연구 韓日議員聯 합의

【東京30日=宋孝彬특파원】 李大淳의원(民正)을 위원장으로하는 韓日의원연맹 歪曲교과서시정특별위원회는30일 제1차합동회의를 열고 일본교과서중 최근세사부분을 제외한 고대사부분을 공동연구키위한 기반을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제2차회의는 11월초 서울에서 개최키로 합의했다.

## 地平線

...곳곳에서 열리리라 한다. ▼예부터 농경민족인 우리겨레는 추수뒤면 10월을 상달이라 해서 [illegible] 한 민족놀이를 가졌다. 올해만큼 심한 가뭄으로 농민들이 땀을 흘려내도 드넓지만 하늘의 도움으로 大豐을 안은 기쁨도 그만큼 크므로 올풍년제는 더욱 푸짐할것 같다. 오늘은 한해가운데 가장 달이 밝은 仲秋節, 햇곡식을 조상에 바치고 [illegible] 하는 민속이 몇천년래 내려오는 날이다. ▼이번 새농민대회서는 75세이상노인께드리는 長壽賞, 姑婦賞을 시상하며 敬老잔치가 베풀어진다. 또 농악, [illegible] 놀이 등은 민속경사와 勸農행사, 농산물품평회도 끼어있다. 전통적인 민속놀이에 현대적인 勸農을 곁들인것이 이채롭다. 신라때의 베짜기놀이 뜻깊은 민속놀이 같다. ▼옛적엔 伏夕、端午、正朝를 三名節이라 일컬었다. 秋夕玩月은 秋夜長이 짙어갈수록 興趣가 났는데 강강수월래등 전전한 행사가 많았다. 제주도의 照里之戲(조리희)나 捕鷄之戲도 유명하고 씨름대회는 고을마다 했다. 즐거운 계절인지라 가을은 조상을 모시고 먼 옛날을 되돌아보는 때이기도하다. 가을 秋字는 禾+火로 되어있는데 禾는 벼이삭이 고개를 숙인 모습이고 火는 [illegible]를 뜻한다. 나무잎이 일제히 떨어지고 몸을 당기며 오므리는 계절이다. 또 秋와 心을 합치면 愁가되는데 가을은 쓸쓸함을 나타내기도한다. ▼둥그런 明月을 바라보는 즐거운 추석날에도 한쪽으론 쓸쓸함을 잊지않는것이 우리겨레이다. 달도 차면 기우나 하듯 月字는 缺을 의미하기도 한다. 月字는 초승달을 그린 글자요 月字속의 점「:」은 달의 검은 그림자를 말해준다. 하나 초승달이 다시 둥근모습으로 돌아오듯 달은 不死身 영원을 뜻한다. 계수나무 밑에서 떡방아를 찧는 토끼를 연상하면서 歸省列車에 실려 그리운 고향의 추억을 더듬는것이 현대인의 가는지 모른다. ▼結實의 가을、滿月의 가을은 둥근포용력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기에 8·15日夜 [illegible] 둥근달은 萬人이 똑같이 우러러 볼수있는 달이라고한다. 한때 이번 새농민대회에서 長壽賞을 받게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illegible] 즐거움을 더욱 오래오래 누리게 된 것이다. 예전엔 百歲를 上壽, 80세를 中壽, 60세를 下壽라고 했지만 요즘엔 수명 자체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일보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 (416) 532-2727

공인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은퇴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 각종보석
▲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 최저가격
▲ 뉴디자인
▲ 보석개조 교환매매
▲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 내고향 통닭집

◎예전의 분위기가 아닌 새로 단장한 통닭집에 한번 들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성원에 날로 성장하고 있읍니다.

메 뉴

| | | | |
|---|---|---|---|
| 오뎅·백반 | $3.75 | 빈대떡 4개 | $2.— |
| 우동 | $3.— | 짜장면, 곰탕 | $3.75 |
| 냉면 | $4.— | 갈비백반 | $5.75 |
| 통만두 | $3.— | 생선찌개백반 | $4.75 |
| 김밥 | $2.95 | 통닭 | $5.95 |
| 칼국수 | $3.75 | ½닭 | $3.75 |
| 곰탕 | $3.75 | 불고기백반 | $5.95 |
| 비빔밥 | $4.00 | 생선초밥 | $4.5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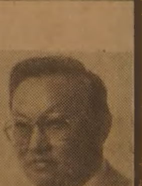
지역에 따라 배달 가능합니다.
658½ BLOOR ST. W. ☎ : 537-0432 주인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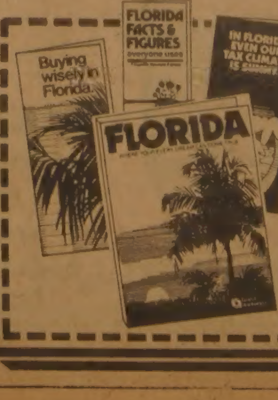
또다시 지독한 캐나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읍니다.

**If you're thinking about moving to Florida in ten years, now's the time to start thinking.**

Although no one can really predict what will be ten years from now, one thing's a certainty: Every year, inflation makes your Florida move a lot more expensive.
That's why we suggest you consider making your first move toward the future as soon as possible. By considering buying a General Development homesite today—at our current prices and terms. Instead of tomorrow's.

To help you look into the possibilities of this excellent hedge against inflation, General Development has prepared a comprehensive Property Information Kit about its communities as well as Florida in general.
It will answer many of the questions you might have on why to buy, where to buy and how to buy wisely. In short, it'll start you thinking. Now. Mail coupon today or call:

☎ : 661-1625
Toronto office
혹은
Collect call
(1)-935-7175(B)
935-2325(R)

정번헌



Can-Am Real Estate Ltd.
Real Estate Broker
Authorized Ontario Representative for General Development
Attn: Mr. Ben H. Chung
452 Lake St.
St. Catharines, Ont. L2N 4H4
Please Rush us our Property Information Kit. We understand there's no cost or obligation to purchase.
Name
Address
City/Province/Code
Telephone Number

저를 아끼시는 웃어른·친지여러분 그동안도 안녕하시온지요. 외국부동산광고 규제법에 의해 상기부분을 영어로 알려 드림을 이해 하시기 바라오며 이번에 여러가지 좋은 조건으로 미래의 「후로리다」집 또는 집터를 손쉽게 장만하실 기회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릴 터이니 원하시면 재게전화나 편지 주시기 바랍니다.
삼가 정번헌 배상

# 베긴, 「虐殺책임」시인
## 政治·軍事 과오여부 調査

【예루살렘=AP·聯合】메나헴·베긴 이스라엘수상은 29일 西베이루트 팔레스타인 난민대학살사건의 진상을 조사할 국가사문위원회구성을 이츠하크·카한대법원장에게 공식적으로 위촉하는한편 난민학살사건발생후 처음으로 자신에게 이번사건의 책임이 있음을 시인했다.

베긴수상은 이날 카한대법원장에게 공한을보내 증인소환·위증인처벌등 완전한 사법권을가진 査問委의 委員長 1명과 委員2명을 선임해줄것을 요청했다고 베긴수상의 한 보좌관이 밝혔다.

카한대법원장에 의해 구성될 3人査問委는 진상조사활동에 시간적제한을 받지않으며 단순한 진상조사 차원을 넘어서 정치·군사적 결정과정의 과오여부를 파악, 시정건의도 할수 있다.

이 査問委의 조사결과는 어떤 구속력을 가진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국내외 여론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査問委구성에는 법에따라 대법원판사1명이 포함되어야하며 카한대법원장이 위원장직을 맡게될것으로 믿어진다.

이스라엘신문들은 査問委가 베긴수상, 아리엘·샤론국방상, 라파엘·에이탄 軍참모총장등 이스라엘 고위지도자들을 증인으로 소환할것이라고 보도했다.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 海外토픽

### 타잔흉내 負傷잦아

★유고어린이TV영화탓 유고슬라비아 아동들이 최근 TV로 방영되고 있는 해묵은 타잔영화를 보고 지붕위에서 타잔흉내를 내다 골절상을 입는 사고가 크게 늘고있다고.

베오그라드에서 발행되는 폴리티카紙는 골절등 아동들의 각종 부상사고가 지난달 15%나 증가했다면서 그원인은 지난 한달동안 매주 일요일마다 TV로 방영된 타잔영화때문이라고 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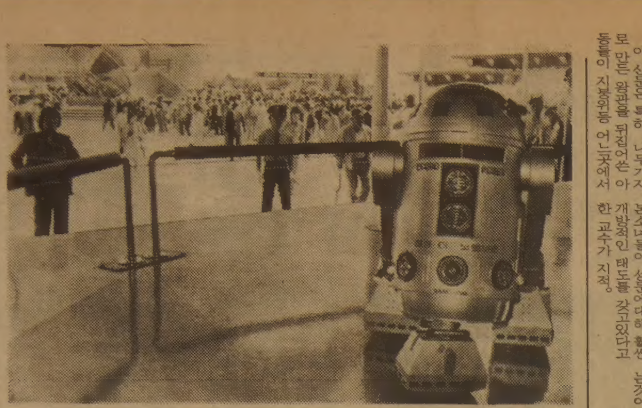
이 신문은 특히 나무가지로 만든 왕관을 뒤집어쓴 아동들이 지붕위등 어느곳에서나 타잔을 흉내내면서「아혼」을 외쳐대는 소리를 들을수 있다면서 도시에서 자라난 아동들은「밀림의왕」을 흉내내는데는 매우 서툰것 같다고부언.【베오그라드(유고슬라비아)=AP】

### 日少女들 性開放的

★경험자 7년前보다2倍 남녀평등사상이 신장되고 신체적성장이 빨라지면서 일본소녀들이 성문제에대해 훨씬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있다고 한 교수가 지적.

일본성교육협회의 마미야·다께시교수는 마이니찌(每日)신문과의 회견에서 최근 한 설문조사결과 소년들의경우 성경험자가 지난 7년전의 15·1%에서 18·7%로 약간 늘어난 반면 소녀의 경우 6·6%에서 13·4%로 두배이상 대폭증가했다고 설명.

마미야교수는 이같이 소녀들의 성경험이 현저히 증가한것은▲남녀평등사상의신장▲영양상태개선으로 인한 신체적 조숙▲여성취업에 대한 사회의 편견해소등에 기인하는것이라고 풀이.【東京=UPI】



국제박람회 하이라이트

### 로보트 수문장

◇三星館의이코노로보트가재롱동이다。三星電子에서제작한이로보트는 전후좌우 회전운동으로재롱을 떨면서 관람객들과 마주치면 『어서오십쇼』『안녕하세요』의 인삿말을 비롯해서 관람객이 물으면 이름 나이 생년월일등을 대답하기도한다。

## 한국일보 詩壇

### 지금도 오고계시는 당신

鄭然德

어디에 언제나
새 모습으로
새 바람으로
오고 계시는
당신을 생각합니다.
罪惡을 버리고
나를 버리고
빈 손으로 나아갔은
죽음을 넘을 믿기때문입니다.
배신과 배덕의 무리
죽음의 회색바람을 일으켜도
파 오셔야 했던
그 약속의 당신을 생각합니다.
어둠을 털고
때로는 빗물기로
천둥번개로 허면 속에
오시는 당신을
빈 가슴으로 맞고 싶습니다.

### 貿易박람회 관람객 1週만에 40萬돌파

서울국제무역박람회 관람객이 개막 1주일만에 40만을 넘어섰다。

대한무역진흥공사에 따르면 지난24일 개막된 서울국제무역박람회엔 일반 관람객은 물론 학생단체관람객등 인파가 연일 쇄도하고 있는데 30일까지 1주일간 42만5천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 政府, 새豫算案제출 10조5천1백70억

정부는 30일 10조5천1백70억1천48만원규모의 새해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당초예산보다 2천6백43억9천9백만원이 축소조정된 9조3천1백37억2천5백만원 규모의 금년도 追更案도 제출했다.

# 내리막길 英 육상皇帝 세바스찬·코
## 유럽選手權8백m서 銀메달
## 라이벌 오베트도 記錄저조

◇영국 육상중거리의 황제인 세바스찬·코 [illegible]

육상중거리의 황제인 세바스찬·코는 그대로 무너질것인가。

육상 3개종목의 세계최고기록을 보유하고있는 영국의 세바스찬·코는 최근 아테네서 열린 유럽육상선수권대회 8백m서 은메달에그치자 濠州브리즈베인서 열리는 영연방경기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선언, 파문을 일으켰다。

강력한 중거리라이벌인 스티브·오베트가 부상으로출전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에서 코마저 불참을 선언하자 영국육상계는 큰 충격을 받았다。

지난8월 자신의 건재를 증명하기위해 은밀하게 컴백을 위한 훈련을 시작했던 코는 아테네유럽선수권대회 8백m 참가를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해왔다。

그는 5주간의 준비훈련으로 3개레이스에 뛸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으나 이같은 예상은 빗나가고 말았다。

런던、프랑스의 니스、그리고 오리건州의 유진에서 열린 3개대회는 82년의 하이라이트였다。

코와 오베트에게는 대회마다 부상이 따랐다。

올림픽 8백m금메달리스트이자 1천5백m 세계선수권보유자인 오베트는 지난해 12월 큰 부상을 입었다。

그는 브라이튼의 집앞서 연습중 다리와 무릎의 근육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해 수술을 받았으나 상처가 도져 회복이 늦었다。

오베트가 사고를 당한지 두달후 코도 발목다쳐、훈련을 중단、4개월간이나 쉬면서 요양을 하다가 6월5일 프랑스에서 2천m레이스에 참가했다。

2주후 오베트는 런던 크리스탈팰리스의 1천5백m크레이스에 참가 3분47초25로 우승을 차지했다。

자신의 세계최고기록보다 15초 늦은 것이지만 그는 다시 운동을 할수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기뻤다。

그러나 기쁨도 오래가지않았다。 6월9일 파리서 1천5백m 경기중 위(胃)에 통증을느껴 그라운드에 주저앉아 실려 나갔다。

오베트는 7월17일 완전히 회복、코와 처음으로 3천m서 맞붙을 기회를 가졌으나 코의 갑작스런 경련이 부상으로 무산되고 말았다。

오베트는 이 경기서 10위에 머물러 선수생활중 가장 처참한 패배를 당했다。 코는 7월말 오베트와 함께 영연방경기대회 파견대표로 선발됐지만 예도 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점차 지난날의 컨디션을 되찾고 있다。

코는 노팅햄서 1마일경도의 국제지원만이 지켜보는가운데 유별히 벌어진 8백m레이스서 유럽기록에 0:5초 떨어지는 1분45초5의기록을 냈다。【런던=聯合】

## 4角의링에 友情의 눈물
### 라포르테、챔피언 되던날

사각의 링에는 피와 눈물이 함께 존재한다。

지난 9월15일 프로복싱 WBC 페더급 타이틀 결정전서 훌리오·마리오·미란다(콜롬비아)에 10회종료 기권승을 거두고 새챔피언이 된 환·라포르테(푸에르토리코)는 한때의 복싱라이벌을 안고 눈물을 흘렸다。

이 글러브는 전 챔피언 살바도르·산체스(멕시코)가 라포르테에게 선물로 준 것이다。 얼마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WBC 페더급 챔피언 산체스는 같은 급의 라이벌인 라포르테와 생전에 깊은 우정을 나누었었다。

라포르테가 산체스와 처음 겨루게된것은 지난 80년 12월13일 타이틀전에서였다。

이 경기서 19세의 라포르테는 판정패했지만 산체스의 인간미에 감동했다。

산체스는 승자로서의 오만함을 보이지 않았으며 패배로 외기소침해있는 라포르테를 찾아가 복싱글러브를 주면서 더욱 힘을내라고 격려했다。 원한다면 언제가 다시한번 타이틀전을 갖자고 약속까지 했다。

산체스가 교통사고로 죽지만 않았어도 산체스는 지난15일 라포르테의 도전을 받아 두번째 타이틀전을 갖게 되어있었다。

산체스의 인간미도 훌륭하지만 라포르테 역시 자기가 한번 싸운 상대와는 쉽게 친해지는 개성을 갖고있다。

### 前챔피언 산체스가 준 글러브끼고 勝利
### 한번싸운 相對와는 쉽게 친해지는 性格

7세때 뉴욕으로 온 라포르테는 브루클린의 베드 [illegible] 하고있다고 라포르테는 리피드가 트레이너로、후원자로 [illegible]

[illegible] 기와 싸운 상대와는 쉽게 이빨을 부러뜨렸고 상대는 메려갔다。 부러진 이빨을 삼켜버렸다。 두사람은 지금까지도 서로 교미를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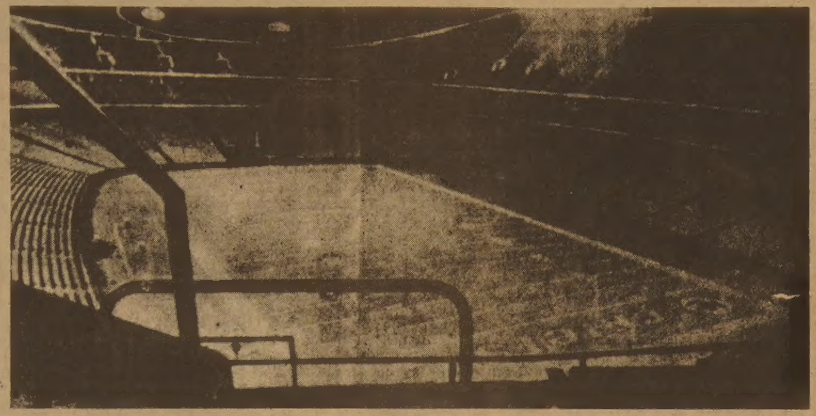
지금 라포르테에게는 에스파다와의 前세계챔피언 에딘·그레고리 [illegible]

자랑스럽게 보여준다。 [illegible] 주고있다。 [illegible] 라포르테는지난 1월24일 WBA 페더급 챔피언 에우세비오·페드로사에게 도전했다가 판정패했다。 그러나라포르테는결코자기가 졌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대전 필름을 검토한 뉴저지州 미션과 뉴욕등 5군데의 커미션서는 라포르테가 승리했다고 판정했으나 WBA서는 당초의 판정을 번복않고 있다。

이제 라포르테는 WBC 정상에올라 한을 풀었다。 산체스가준 글러브로 명연승에 산체스가 비워놓은 세계왕좌를차지한것이다。

## 海外스포츠



◇프로 풋볼 선수들의 파업으로 텅텅 빈 캔자스시티 경기장。 球團경영진과 선수들이 임금인상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 잃어버린 日曜日
## 프로 美式蹴球선수파업 큰波紋
### 보수에 不滿…야구의 절반
### 球團主"게임수 적어 낮은대우 아니다"
### 선수측"부상위험 많고 선수수명 짧아"

◇미식축구 평균연봉

| | |
|---|---|
| 쿼터·백 | 160,037달러 |
| 러닝·백 | 94,948 〃 |
| 와이드·리시버 | 85,873 〃 |
| 수비라인 | 92,996 〃 |
| 공격라인 | 85,543 〃 |
| 라인배커 | 85,205 〃 |
| 수비백 | 79,581 〃 |
| 키커 | 65,779 〃 |
| 평균 | 90,102 〃 |

「잃어버린 일요일을 되찾게 해주시오」 미식축구 중계 파업은 非시즌기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큰파문이 일지 않았지만 이번 스트라이크는 시즌 벽두에 발생, 그파장은 전례없는 것이다。 미식축구는 프로야구선수들이 파업을 했던 것은 지난 81년 여름 프로야구선수들의 2개월의 장기 스트라이크를 ...

[illegible] 프로미식축구 리그(NFL)의 28개팀 1천6백여선수들이 파업을벌이겠은 프로풋볼 63년역사에서 세번째。

현재 미식축구선수들이 반는 급료는 야구나 농구선수들의 연봉과 비교하면 절반수준이다。 프로야구선수는 평균18만5천달러、야구는 14만3천달러를 받는데 비해 미식축구는 9만달러가 조금 넘는다。 다같은 프로스포츠선수지만 풋볼선수만이 낮은보수를 받을이유가 무엇인가고 반문、 연봉인상이 이번에 꼭 이루어 져야한다고 선수들은 단합을 호소하고있다。

그러나 프로풋볼 구단주들의 주장은 다르다。 프로야구의 경우 1년에 1백62게임을、농구는 82게임을 갖는데 비해 프로풋볼은 선수들이 한 게임당 18게임을 치르므로 한 게임당 미식축구 선수들이 가장 많은 임금을 받는다는 주장이다。

구단주들의 이같은 주장에대해 선수측은 야구나 농구보다 부상위험이 많고 선수평균 수명도 5년 정도밖에 되지않는다고 반박, 양측의 공방전은 치열하다。

선수협회 사무국장인 에드워드·가비씨는 구단측이 앞으로 4년간 해마다 4억달러씩의 기금을 내놓고 TV중계료 21억달러(향후 5년간 합계)의 절반을 선수들에게 할애, 선수의 경력에 따라 자체적으로 보수를 결정하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을 구단측에 제시했다。

구단주들은 이에 대해 매년 4억달러를 내놓아 현재의 연봉을 2배가까이 끌어올리겠지만 TV중계료와 선수들이 스스로 연봉을 결정하는 안은 결코 수락할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러한 선수 파업으로 구단주와 선수 양측은 모두 큰 손실을 입고 있다。 구단측은 2천만달러의 TV중계료·1천5백만달러의 입장료등의 수입을 이미 잃었다。 선수들도 9백만 달러의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선수들이 기대하고있는것은 美國 노동총연맹 산업별회의기구인 AFL·CIO의 지원약속이다。 AFL·CIO는「미식축구 선수들의 이번 파업은 훨씬 많은 봉급과 보다 나은 작업환경을 요구하는 일반 파업과 다를바없다」며 선수들을 측면지원하고나섰다。【金仁淑기자】

## 장시간 운동해도 副作用없는
# 스포츠用 브러지어登場
### 뉴욕서市販…나오자마자好評

◇새로개발된 스포츠用브러지어。

스포츠用브러지어가만들어져 [illegible] 졌다。 젊은 스포츠우먼이며 생리학자인 도로시·프랑켄양은 자신의 마라톤경험을토대로 브러지어가 말썽많음이론 [illegible] 는 스포츠나 장시간 운동을 [illegible] 직이는직장여성의경우 브러지어 때문에 피부에 물집이 생 [illegible]

[illegible] 문을 얻고 또 많은 시험을 만들어낸후 지난 봄 뉴욕시장에 완성품을 내놓았다。 「스포츠·브라」라고 이름붙인 이 새 상품은 나오자마자 큰 好評。

체이스·맨해턴은행의 제록부는이 새브러지어를검토한후 즉각「봉단」라고 판정하고 여은행원들에게 구입해주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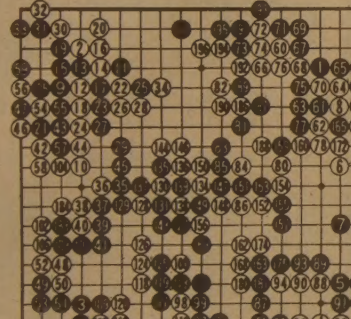
스포츠·브라사용자들은 스포츠·브라는 가마라토너나 직장여성에게만 좋은것이 아니고 브러지어끈만적당히 조절해주면 벗어졌다가 새로입는불편을 겪지않고 장시간 착용할수있어 누구에게나 좋다고 말했다。

스포츠·브라는나일론과 무명을 적당히 배합하여 신체구조의 각부분에 맞도록 전체를 여러부분으로 나눠 만든것이 특징。

[illegible]

[illegible] 【월드뉴스】

## 제14기 名人戰 [illegible]



### 李4段 本選進出

第3局 總譜 (207手까지 黑不計勝)
(각4시간·제5회전)
白(7段) 鄭 [illegible]
黑(4段) 李 相 [illegible]

鄭7단은 이제 어지간히 건강을 회복했는가 싶었는데 그러나 제3차예선 제1·2국을 연승하면서 기량이 의지를 뒷받침해 주지 못했다。 [illegible] 일단 불통사람이면 아직도 를조심을 계속해야 한다는 처지인데도 정친까지 올라온것은 본인자신 크나큰 위안이며 자기를 위한 자신감도 갖게하는 일이라할수 있다。 그의 완전회복을 빌어마지 않는다。

한편 李4단은 이로써 대망의 名人戰시구가 되었다。 예리하고 샤프한 그의 솜씨에 기대를 걸어 보기로한다。

黑19까지 되었을때 白20은 위험한 수。이하 黑59까지의 변화는 마찬가지로 피차 불만스럽지않은 결과이다。

그러나 白60에 선착하여 白의 호조가 다。 [illegible] 또 하변白은 白116으로 쉽게 살리지 않고 [illegible] 白80이하 86으로 고전을 자초했다。

白134이하로 우상방일 黑을 공격했지만、결국 黑191이하 207。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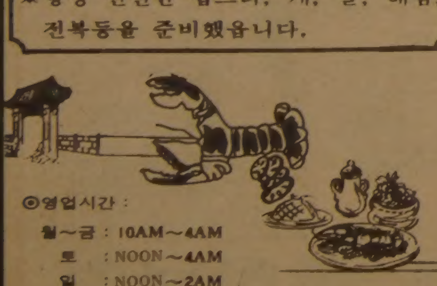
161、167、173、179、185、149。 178·185。【一九】

# 意安飯店
## 의안반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 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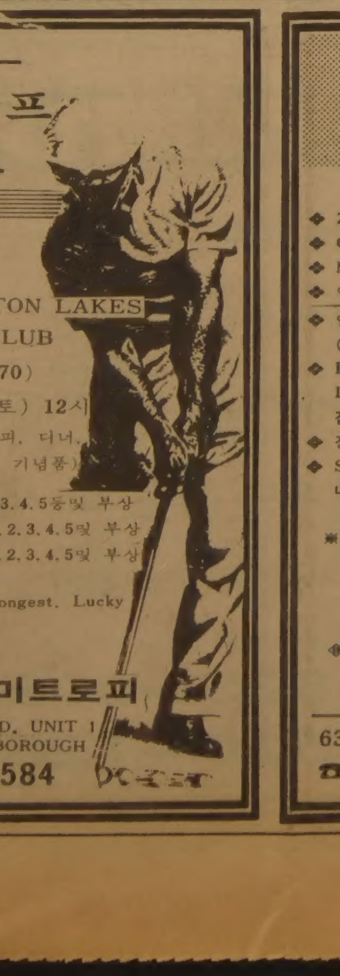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10AM~4AM
토 : NOON~4AM
일 : NOON~2A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 와 Chestnut 코너)
☎ : 977-9734

제2회 ———
# 마스터골프 토나멘트



장 소 : NOBLETON LAKES GOLF CLUB (859—4070)
일 시 : 10월9일(토) 12시
참가비 : 50불(그린피, 디너, 카트및 기념품)
시 상 : 그로스 1.2.3.4.5등및 부상
NET A조 1.2.3.4.5및 부상
B조 1.2.3.4.5및 부상
Nearest Longest. Lucky

주최 : 무나미트로피
880 ELLESMERE RD. UNIT 1 SCABOROUGH
☎ : 298~3584

# 블루어안경

◆ Zeiss(Marwite)
◆ Christian Dior
◆ Menrad
◆ 안경제조·수리·복사처방
◆ 안과의사알선 (No Appointment)
◆ Blue Cross, Metropolitan Life Vision Care지정 안경점.
◆ 정부 보조 안경지정 영업소
◆ Stock렌즈는 당일 서비스합니다.

※ 주2회 안과의사가 직접 내방하여 검진하오니 이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토요일 : 오후1시부터 4시30분까지

◈영업시간 : 월~목 9 : 30AM~7PM
금~ 9 : 30AM~8PM
토~ 9 : 30AM~6PM

635 BLOOR ST. W
☎ : 531—2236(B) 886—0722 (R)

# 종합보험

김 홍 량

● 생명보험
● 자동차보험
● 주택, 상점보험
● 사업보험
● R. R. S. P.
● INCOME AVERAGING ANNUITY
● PENSION

FINANCIAL & INSURANCE CONSULTANT
961—3774(B)
277—8733(B)
624—2103(R)
IMPERIAL LIFE

The Imperial Life Assurance Company of Canada
Suite507, 586 Eglinton Av. E.
Tor. Ont. M4P 1P2

● CAPITAL GAIN, 높은 소득으로 인한 높은 세금의 조절및 경감방안
● 기업계승에 따른 문제처리
● 생활안정금고

王国선포 半世紀맞는 資源大国

# 오늘의 사우디아라비아

## 사우디의 한국人들

**特別좌담**

◆때 : 1982년9월25일하오2시
◆장소 : 本社13층 松嶺홀회의실

참석자
河五文씨 (現代건설해외업무부理事)
周文植씨 (大林산업事務理事)
尹在鍵씨 (코오롱건설해외담당常務)
柳成鏞씨 (東亞건설해외담당常務)
司會·李梓昇특집부장대우

—바쁘실텐데 이렇게 참석해주서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해외건설업계의 中東진출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건설협력은 괄목할실적을 보이고 있읍니다. 전쟁이라는 특수한배경이 있었던 월남진출과는 달리 순수한 민간베이스로 이만한 해외진출의 성과를 올리고 있는것은 처음이 아닌가요. 우선 각사별로 사우디지역을 중심으로 건설협력현황과 현지사업내용부터 소개해주시지요.

◆河五文이사(現代)=現代건설의 경우 75년10월 사우디에 처음들어가 현재까지 총계약고가 54억6천8백만달러에 이르고 있읍니다. 주베일 산업항건설 (9억3천1백만달러)、아시르전력항공사(1억6천3백만달러)、알코바 담수화공사 (8억7천만달러) 등이 특색있는 공사였읍니다. 주베일항공사는 지금까지 국내업체의 해외단일공사규모로는 최대규모였고, ◆아시르전력항공사는 턴키베이스의 기술집약적인 공사로 해외건설출 사상처음이었다는데 특색이 있읍니다. 알코바담수화공사는 유럽계 5개국업체가 참여한 컨소시엄으로 現代가 첫 참여했다는데 의미가 있읍니다. 現代는 현재 受注공사중 8할을 이미 끝냈고 공사가 계속중인 나머지 공사는 약 10억달러정도입니다. 현재 네고중인 공사는 리야드국립종합병원공사등 모두 15억달러규모가됩니다. 사우디파견인력은 현재기능공 1만2천명, 사무직 3백명등입니다.

◆柳成鏞상무(東亞)=東亞건설은 74년에 첫진출했고 현재까지 총35억달러를 수주, 이가운데 22억달러상당을 완공했고 13억달러분이현재공사중입니다. 특기할공사는 자동전화공사 (東亞分6억달러)인데 네덜란드의 필립스社, 스웨덴의LM엘렉스社와 공동으로 시공중입니다. 총수주액이 13억달러나되는 단일공사로는 최대규모입니다. 현재 공정이 97%를 마치고있는데 사우디 정부가 당초에는 80만회선으로 계획했던것을 1백10만회선으로 늘려 앞으로 추가발주를 자동적으로 따게되어있어요. 우리회사의 한가지 특기할 점은 工期를 단축해 사우디정부로부터 보너스를 많이 받았다는것입니다. 진출 인력은 한창때에는 기능공이 1만2천명까지 된적이 있고 사원은 1천5백명정도 나가있읍니다.

◆尹在鍵상무(코오롱)=코오롱건설은 해외건설에 진출한것은 75년 인도네시아가 처음이었읍니다. 사우디 첫진출은 78년, 지난 9월18일 완공한 주베일의 주택건설공사였읍니다. 건설규모는 주택 5백동, 수주액은 1억2천만달러였어요. 그밖에 8천8백만달러짜리 펌핑스테이션공사를 끝냈고, 주베일의 상하수도배관공사·주택공사등을 수주받아 공사중입니다. 지금까지의 총계약고는 4억달러인데 이중 1억5천만달러분은 공사를 마쳤읍니다. 인원은 기능공이 1천5백명등되는데 제3국인기능공이 5백명, 사원은 3백명정도입니다. 앞으로 수주공사가 본격화되면 3천명선으로 인력이 늘어날것같습니다.

◆周文植전무(大林)=大林은 지난74년 라스타부라정유공장건설에 참여, 70만달러짜리 보일러시설을맡으면서 사우디에 처음 진출했읍니다. 이후 주로 정유공장, 가스프로젝트등 플랜트계통에 참여해 지금까지 모두 51건공사에 55억달러어치 공사를 끝내고 현재 28건 11억달러 공사를 사우디에서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밖에 3억4천만달러규모 아시르담수화공장건설사업에 日미쓰이、스미또모등과 컨소시엄으로 공동참여(大林포션 1억7천만달러)하는 것등 현재 네고중인 것이 5억달러정도됩니다. 大林의 인원은 현재 기능공 8천9백명과 방글라데시、泰國등 제3국인 4천명과 사무직원 1천5백명등 모두 1만4천명정도가 일하고 있읍니다.

◇河五文씨

◇周文植씨

◇尹在鍵씨

◇柳成鏞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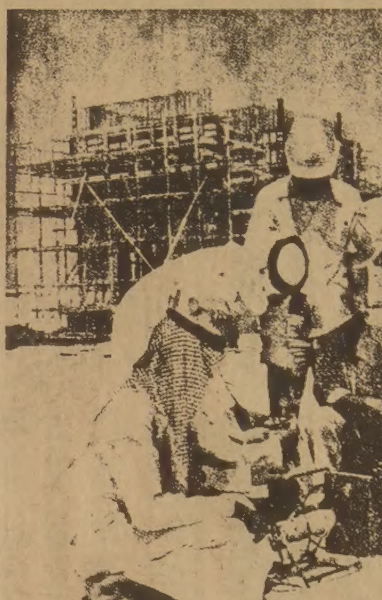
## "技術우수"평가로 信用度는 만점
## 기능공들도 事故없이 목돈 마련

—지금까지 대체로 말씀을 들어보니까 각사별로 주된 진출분야라고 할까 주로맡은 프로젝트의 특성같은 것이 나타나는 군요. 사우디 건설진출의 成果와 대외적인 성가등에 관해 말씀해주시지요.

◆周전무=사우디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프로젝트는 대형플랜트가많다는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특히 요즘은 턴키베이스가 많은데 이런점에서 우리업체들이 그동안 사우디에서 쌓아온 경험은 설계나기술·시공면에서 국내자체에서 할수있는것보다 대단한 발전과 향상을 가져다주었다고 생각합니다.

◆柳상무=한국업체가 처음으로 진출할 당시에는 자격심사를 받았었지요. 76년까지만 해도 플랜트수주는 거의 없었지만 있어도 따기가 어려웠지요. 79년부터 한국업체에게 플랜트 수주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다른 공사하는 것 보니 잘 하거든요. 다른 업체에 맡겨보았더니 질적으로 미흡해 우리회사에게 맡겨온 경우도 있었읍니다.

◆尹상무=아까 大林의 周전무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우리업체들이 국제수준의 테크닉을배운곳은 역시 사우디시장이라 생각합니다. 우리회사는 現代·大林·東亞같은 회사에비해 규모는 작지만 75년 해외건설시장에 참여한 이래 착실히 배워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참여할 단계에 왔읍니다.


◇技術전수로 友誼다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국인은 꼭 달러를 벌기위해서만 일하고있지않다. 사우디공사장 곳곳에서 한국기술자들은 사우디인들과 서로 고개를 맞대고 공사의 진행을 협의하며 기술을 전수하고 우의를 다진다.

◆河이사=現代건설은 사우디에 가서 도로、주택、플랜트까지 여러공사를 해봤읍니다. 잘 알다시피 사우디에서 기간산업부문은 75년부터 78년을 고비로 거의 끝나가는것이 아닙니까. 앞으로는 기술집약형공사로 유전이나 해상에서의 오일·가스분리공사등 대단한 기술축적이 필요한 플랜트분야로 눈을 돌려야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사우디와의건설협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끌고 나가야 할것으로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柳상무=지난해에 착수해 85년에 끝나는 사우디의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투입되는 총예산이 2천7백억달러에 달합니다. 금년도 예산규모가 4백70억달러로 최근수년간의 예산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개발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되는한 우리업체들의 사우디시장참여도 계속될것 입니다. 바람직한것은 공사와관리를 동시에 해주는 OM공사를 수주받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동전화공사로 80만회선이 완공되어도 사우디에는 이것을 가동할 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더러 가동인력 9백79명을 모집해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尹상무=트레이닝·티(기술훈련비)를 수주액에 포함시키는 경향이 많아지고있읍니다. 사우디는 인력이 절대로 부족한 나라이니까 우리로서는 가장좋은 시장이라 해야할것입니다.

◆河이사=우선 엔지니어링을 우리가 소화하는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야만 각종 플랜트의 기계·부품을 국산화해서 공급하고 플랜트 건설에도 참여할수 있게되지요. 외화가득액을 높이는 가장좋은 방법이 그것밖에 없읍니다.

◆周전무=플랜트시공은 라이센스가있어야하고 중기계를 제작공급하는 능력까지 필요한데 아직 한국업체들이 전체인 턴키베이스시공을 할수있는 대외신용이 크게 높지는 못한 편이지요. 아직은 역사가 짧으니 하나하나씩 쌓아 성가를 높여가야합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외국업체들과의 컨소시엄, 특히 국제차관이나 금융을 끌고 들어가는 파이넨싱문제에 어두워 손해를 보는 경우도있을텐데, 이점에 대해서…

◆周전무=사실 한국업체들이 아직은 인터내셔널·컨소시엄에 약합니다. 특히 유럽쪽의 컨소시엄업체들은 아주 세밀하고, 감력하게, 간교할정도의 세련된 것이지요. 일본만해도 동양식으로 철저하고 세밀한 면에서 유럽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우스운 이야기로 계약서 같은것이 용어해석문제만해도 도망갈 구멍을 다만들어 놓고 시작하는데 비해 우리업체는 내용을 완전히 마스터하지 못한것이 번번이 드러나는 정도로서, 아직도 더 연구、경험을 쌓아야 할것 같습니다.

◆柳상무=78년까지는 개런티라든지 돈같은것은 국내은행에서 발급해왔읍니다. 그러다가 한국업체의 우수성이 입증되고 공사규모가 커지니까 외국은행들이 돈 대주겠다고 나서기 시작했지요.

## 플랜트受注 工事·管理함께 맡는 OM式이 바람직

현재 우리회사 (東亞建設)의 경우는 국내대 해외의 비율이 반반정도입니다.

◆尹상무=지금까지는 우리 외환은행의 대내 지불보증을 받아 외환은행을 경유해 진출케 하고 있었으나, 요즈음은 외국은행들이 돈을 빌려 주겠다고 서울까지 찾아오고 있어요. 공사를 따내는 것이 문제이지 자금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河이사=파이낸싱 (금융)에 한국업체들의 신용상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최근 국내어음사건이후 사우디 은행측에서 어느정도의 제한을 가해 옛날과 달리 입찰전에는 반드시 국내은행 보증이나 심지어 우리정부가 보증할것을 요구하는등 변화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우디에서 공사를 하는데 파이낸싱이 큰문제는 되지않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까지의 사우디진출의 경험을 발판으로해서 제3국등 세계시장으로 나가는데 어떤 도움이 됐으며 제3국의 진출의 전략이나 방향이라면 어떤것이 있겠읍니까?

◆河이사=사우디는 앞으로 50년간은 더 원유생산이 될수있고 따라서 개발도 계속 될것으로 봅니다. 시장자체가 中東에서 가장 안정돼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당장 이익이 많다는점에서가 아니고 사우디측에서 추진하는 자국화시책등에 협력하면서 장기적으로 기술·자본의 협력등을 통해 계속 개발에 참여할수있다는점에서 시장자체의 존속가치가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周전무=최근 아프리카지역에 대한 협력강화가 모색되고 있지 않읍니까. 이미 中東에 진출한 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나 아직은 근로여건이나 숙식등 뭐니해도 中東밖에없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현지에서 국내업체끼리의 과당경쟁등으로 공사여건이 나빠지는경우도 없지 않다는데 이기회에 그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지요.

◆河이사=업자로서는 어떻게든 공사 많이 따려하는 것이 상정이고 그런점에서 과거 더러 그런 사례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겠지요. 中東경기가 터진후 건설만 하면 돈번다는 인식이 팽배했었고 너나없이 몰려갔을때도 있었으나 이제는 정비·정착이된 것으로 봅니다. 무조건 공사만 따서는 손해를 보는것이 당연한 일로 됐고, 그렇다면 이것은 생존경쟁인데 따고보자식의 저가공사 수주란 어느업체로도 할수 없게 돼있어요. 스스로 덤핑공사를 따려는 회사는 있을수 없읍니다. 회사규모와 실력에따라 적절하게 공사를 나누어 갖는것은 이제 업계의 하나의 상식으로 정착되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인력관리문제등 애로사항이나 정부에 대한 요망이 있다면 어떤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柳상무=임금문제인데 정부가 규제하는 최저임금선 말입니다. 임금이 싼 제3국인 기능공을 쓰면 급료가 국내인력보다 40%정도 절약됩니다. 고용증대를 통한 국가적차원에서 볼때 한푼이라도 더 주는것보다는 한사람이라도 더 많은 한국인력을 진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관리문제도 새로운 문제로 등장했어요. 전처럼 이윤폭이 높을때는 별문제였지만, 공사따기도 어려워지고 이윤폭도 낮아지고 하니까 관리개선문제가 시급해졌어요. 지난번 진출업체사장단 간담회때 장관이 국내업체간의 경쟁을 지양하고 합작을 검토할때가 아니냐고 말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만, 동감입니다. 국내업자간의 연합전선이나 합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尹상무=저도같은 생각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임금인상도 좋습니다. 중요한것은 근로자들의 멘탈리티입니다. 돈 받는것만큼은 일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주택공사의 경우 1천5백여명을 한꺼번에 풀어놓으면 몇사람의 감독직원으로는 도저히 철저한 감독은 불가능합니다. 기능공 스스로가 임금받은만큼 자발적으로 일하도록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주었으면 좋겠읍니다.

◆周전무=기능공들에 대해 생산효율을 높일수있도록 정부가 어떤 정신교육이나 제도등 구체적방안을 강구해줬으면 좋겠읍니다. 임금의 높고 낮음이 문제가 아니라 회사와 함께 일한다는 기본적인 정신자세, 근무태도가 안되고 있다는 점이 현지에 가있는 회사측으로선 일반적인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점입니다.

## 한국의 사우디人들

# "友情에 산다"

## 배구·탁구팀등 잇단轉地훈련
## "꼬리 남버원…風俗까지 닮아"

『꼬리 (코리아) 넘버·원』 사우디아라비아의 에떼하르 배구클럽의 매니저인 하산·바사파르씨 (31)는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말도 꺼내기전에 한국이 최고라고 했다.

지난7일 사우디배구선수단 21명을 이끌고 한국에 와 仁川의 仁荷大체육관에서 전지훈련중인 바사파르씨. 『한국배구를 좋아합니다. 특히 한국코치는 정말 유능합니다. 가을날씨는 운동하기에 적합하고 물가도 사우디에 비해 싸 훈련비용도 4분의 1밖에 안듭니다』

그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국을 찾은 이유를 털어놓았다.

이런 사우디배구팀외에도 지난번 서울오픈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참가했던 사우디대표탁구선수 20명이 9월한달간 서울에서 전지훈련을가졌고 지난8월12일 사우디공대생29명이 2개월동안 산업계를 돌아보고 떠났다.

이런 「꼬리」에 찾아오는 사우디인의 한사람인 바사파르씨는 막仁荷大선수들과 연습게임을 시작한 선수들에게 고함을 질러가며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

실력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팀수준이어서 대학팀과는 아직 상대가 되질 않는것같아 보였으나 모두들 땀에 흠뻑젖어 배우려는 열기는 대단했다.

시합이 끝난후 기념촬영이 있자 사우디팀의주장 하산·카수단씨(29)는 한국선수들에게 한국 말로 『빨리!빨리!』라고 소리쳐 구경꾼들을 한바탕 웃겼다.

카수단씨는 한국인 沈載和씨(48)가 2년전 자기팀코치를 맡은후 실력이 급상승, 사우디배구 1부리그에서 작년에 준우승, 올해에는 1위를 했다고 옆에있는 沈코치를 추켜세웠다.

그러자 또 바사파르씨는 『선수들은 沈코치말이라면 무조건 복종하고 잘 따르지요. 더우기 沈코치는 사우디에서 활약하는 한국인코치중 제일 영어가 유창해 우리 클럽으로서는 행운입니다』라고 거들었다.

沈코치는 이같은 칭찬에 겸연쩍은듯 『사우디 사람들은 우리와같이 長幼有序가 분명하고 인사성도 무척 바르지요』라며 웃어 넘겼다.

국가대표선수로서 팀의 에이스라는 자말·아씨리씨 (21)는 『코치가 너무 엄격해서 제대로 한국풍물구경 한번 못했다』고 [illegible] 불평하고 『종교만이 서로 다를뿐 한국사람들도 방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것등 사우디인들과 풍속이 비슷한 점이 많다』고 했다.

아씨리선수는 내주초에는 민속촌을 보게된다고 즐거워했다.

沈코치는 『사우디사람들의 성질이 악착같지 못해 처음 밑았을때 무척 힘들었다』면서 『화가나 몇대 때렸더니 울면서 도망간후 영안돌아온 선수도 있다』고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현재 사우디에는 韓明燮코치가 사우디국가대표팀을 이끌고있고 배구에만 11명의 한국코치가 활약하고 있으며 농구 탁구 궁도 태권도등에도 한국체육인들이 활약하고있다.

바사파르씨에 의하면 사우디에는 전국에 36개배구클럽이 실력에따라 1부 (10개팀)、2부 (10개팀) 3부 (16개팀) 으로 나뉘어 2차례리그전과 킹스컵, 협회컵등 3차례의 전국대회를 갖고 있는데 에떼하르팀이 협회컵에서 우승한 사우디의 強豪라는것.

日本배구협회가 배구코치직을 놓고 한국과 경쟁하고 있지만 한국코치가 1부리그 10개팀을 거의다 장악하고 있을 정도로 인정받고 있다고 沈코치는 선전하기도 했다.

바사파르씨는 『작년에 한국에서 전지훈련을 가진후 팀의 실력이 급격히 향상되었어요. 한국배구협회관계자들, 체육관관계자들, 심지어 호텔종업원까지도 우리사우디선수들을 가족같이 돌봐주고 있지요』라며 한국인들의 친절에 고마와했다.

그는 사우디사람들은 서양사람들보다는 같은 東半球인 한국인들에게 더 호감이 간다고했다. 그래서 내년에도 꼭 한국에와 전지훈련을 갖겠다고 했다.

사우디선수들이 연습게임을 하는 체육관에는 책가방을 옆에낀 학생들이 잔뜩 모여들어 弱者를 편드는 본능에서인지, 아니면 손님대접을 해서인지 사우디 선수들이 득점할 때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에떼하르팀은 『한국에서 오래 머무르며 많이 배우고 싶지만 눈이내리기전에 떠나야 할 것같다』며 이한을 아쉬워했다.

仁荷大 체육관에는 아시아대륙동쪽과 서쪽끝의 우정이 네트를 사이에두고 넘실대고 있었다.

이를 증명하듯 62년 두나라간 開交이래 한국을 찾는 사우디인은 각료, 상업, 과학, 문화, 체육분야에서 매년 4백명에 달하고 있다. 【仁川=[illegible]기자】

◇「한국배구를 사랑한다」면서 작년에이어 올해도 한국을 찾아 仁荷大체육관에서 전지훈련중인 사우디배구선수들. 【仁川·李[illegible]기자찍음】


# 소 잃고 난후 외양간 고치시렵니까?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불행은 예고없이 찾아오는 법……

보험대리인 **김 종 조**는 여러분에게 좋은 상담역이 되드릴겁니다.

자동차 — 생명 — 교육 — 사업 — 적금 — 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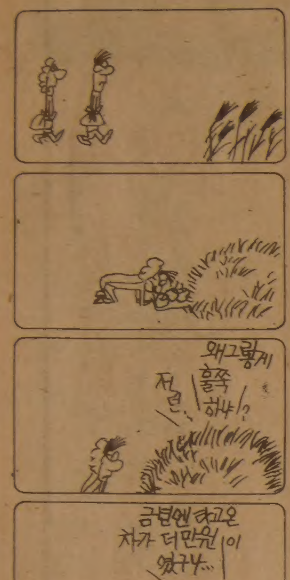
◎ 모든**보험**은 한곳에서 !

**김 종 조 종합보험**은 신속하고 친절한 봉사가 자랑입니다.

651 BLOOR ST. W.
535—0028
535—7200

김종조 종합보험
대리점

두꺼비 안의섭




# 歸省대열 空港에도

# 省墓귀국

## 海外동포들 "뿌리" 찾아 故鄕에

## 생활餘裕생겨 例年보다 부쩍늘어

귀성하는 일시귀국자가 늘고있다。 추석을 맞아도 해외에서 고생을 할때는 마음만 고향땅을 찾았으나 이제는 훌훌털고 조상의묘를 돌러보고 고향친지들을 만나보기위해 귀국비행기를타는 해외동포가 많아지고 있는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이제 우리해외동포들도 기반을닦아 고향을 찾을 재정적인 능력과 마음의 여유를 찾게 됐으며 자신들의 「뿌리」를 잊지않는 자세를 가지고있는것을 의미해 반가운 추석뉴스중의하나가 될것같다。

추석하루전인 30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는 귀성객들로 붐볐지만 金浦공항에도2천여명의 해외동포 추석귀성객이 입국, 가족들의 영접을 받았다。

金浦뿐만아니라 金海와 濟州공항, 부산항을 통해서도 많은 해외귀성객이 입국했다。

고국의 부모와 형제, 친지들에게 전할 갖가지 선물을 한아름씩 안고내리는 해외귀성객의 고국왕래는 설렘과 이들을맞는 가족친지들의 반가움으로 요즘의 공항은 온통 축제분위기다。

金浦공항에는 지난22일 재일동포 추석성묘단 1천2백60명이 고국을 찾은것을 신호로 미주지역 유럽 일본등지 동포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났다。

법무부 金浦출장소에 의하면 지난해 여행자유화조치이후 金浦공항을 통해 입국한 내국인수는 1일평균 1천3백여명이었으나 지난20일 이후 해외교포와 해외여행중인 내국인들이 한꺼번에 입국하기시작, 하루평균 입국자수가 평소보다 6백여명이나 많은1천9백여명에 이르고있다。

KAL에의하면 지난해추석전 10일동안 미주지역에서 입국한사람은 1만여명이었으나 올추석전에 같은기간에는 20%가는 1만2천여명이 귀국했고 동남아지역에서도 하루평균 평소보다 1백여명이 많은 해외교포들이 입국하고있다는것。

이번 추석에 고국을 찾는 동포들은 해외출장중 명절을 쇠러 돌아오는 사람도있지만 대부분 10여년씩 고국을찾지 못했던 사람들로 갖은 어려움과 고생을 딛고 자립, 생활기반을 구축한뒤 조상과고향을 찾아볼 여유를 갖게된 사람들이어서 해외로 진출하는 동포수가 늘어가는것과함께 국력의 신장을 눈으로 보는 것같다。

29일 뉴욕에서 귀국한 金蓮子씨(33·여)는 『10여년전 간호원으로 미국에 이민을간뒤 한국상사의 주재원과 결혼해 살고있는데 이제야고향을 찾을 여유가 생겼다』면서 마중나온 가족들과 얼싸안고 귀성의 기쁨을 나누었다。

해외귀성객들은 가족을 함께데리고 오는 예가 많은데 일본여인 板本惠津子씨(28·東京거주)는 한국인 남편과 함께 시집나라에 처음온다면서 남편을 졸라 성묘에 꼭가기로 약속했다』고 제수로 사온 바나나를 들어 보이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고향을찾는 마음은 나이든 노인일수록 더 짙어 노년들의 모습도 점차 늘어나고있다。

40년전 일본에 징용으로끌려갔던 鄭龍雲씨(66)는 『나고야에서 한방의원을 차리고있으나 추석을앞두고 고향생각이 더욱 간절해 귀국길에 올랐다』면서 비로소 내집을찾은 평온함을 느낄수있다고 어린애처럼 좋아했다。【李鎭기자】

## "父母님 제가 갑니다"

### 列車·버스등으로 百萬人波지방에

추석전날인 30일 하루동안 서울역을 비롯한 각철도역과 江南고속버스 터미널에는 이른아침부터 선물꾸러미를 든 귀성객이 몰려들기 시작, 정오께는 열차로 5만여명, 고속버스편으로 6만여명이 빠져나갔는데 귀성객이 대량으로 빠져나간것은 직장인들이 사무를끝낸 하오5시 이후가 절정을 이뤘다。

교통부는 추석귀성객을 당초 1백30만명으로 잡았는데 30일밤까지 약1백만명이 서울을 벗어났고 나머지 귀성객도 추석인 1일에 거의 서울을 빠져나갈것으로 보고있다。

올해 귀성인파는 3일연휴로 예년과는 달리 비교적 질서있게 귀성차에 올랐다。

〔서울역〕 경부·호남선의 특급이상만 출발하는 서울역에는 대부분 좌석이 미리 지정된 때문인지 질서정연했다。

〔龍山역〕 지난 구정부터 실시된 완행좌석 예매제로 예년과 같은 장사진이 사라졌다。

예매를 못한 승객들은 이날완행열차를기다리느니추석당일 특급을타는게 낫겠다며 서울역으로 발길을 돌리기도했다。

〔清凉里역〕 상오6시 堤川행완행이 5백명을 싣고출발한것을 비롯, 이날20개열차로 3만5천명이 귀성대열에 올랐다。 출발 3시간전부터 나와기다리는귀성객주위를돌면서깔고앉을신문을파는장사꾼들도재미를톡톡히보았다。

〔江南터미널〕 30일 하오부터 귀성객이 붐비기시작했는데 예매를못한 귀성객들이 버스가 승강대에 대면 제시간에 타지않는 빈자리를 잡으려고 혼란했으며 임시차의 차표를 사기위해 釜山大邱매표소앞에는 2백여명이 줄을서고 있었다。

◇무등탄 「달덩이」 고향으로 가는 마음은 긴줄이 지루하지도않다。아빠의 목에 탄 귀여운 어린이의 웃음에 추석분위기가 담겨있다。【30일하오11시20분서울역에서 權周動기자찍음】

## 新安앞바다 보물선은 2백톤級 國際무역船

### 龍骨·船體조각 大量인양

세계적인 화제를 모으며 7년동안 인양되고있는 新安해저침몰선은 2백톤급의 국제무역선이었음이 최종 확인됐다。 문공부 新安해저조사단은 침몰선의 척추격인 길이7m35㎝, 너비67㎝, 두께52㎝의 龍骨을 비롯, 1백76점에이르는 선체의 각부분을 건져올림으로써 배의 규모와 형태를 완전히 규명하게 된것이다。

30일 조사단은 금년도 발굴작업을 마무리짓고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에따르면 올해 발굴된 유물은 1천7백41점이며 동전만 18·6톤에 이르렀다。이중 백자의 접시바닥에 불로초를 물고있는 기린과토끼그림을 생동감있고 원숙하게 그려놓은 鐵畵白磁10점과 두귀달린 청자화병 목재보살입상은 처음나온데다 중국에서도 그예가드문 귀중한유물로 밝혀졌다。

몽골한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유난히 큰귀와 보관을쓰고 목에는 福衣를 입고있는 보살입상 (높이28㎝)은 그중에서도 뛰어난 유물로 평가됐다。

조사단은 좌현 3분의2가 썩어 없어졌으나 우현은 12관의 舷板과 갑판2부가 잘남아 있어서 앞으로 이배의 갑판아래 부분은 완전복원할수있다고 밝혔다。

특히 격벽과 舷板은 모두 견고한 접착제로 붙어있어서 물이 스며들지 않게 돼있으며 늑골이 비스듬히 누어있는 특이한 구조임도 판명됐다。

## 컨테이너船에 히로뽕密室

## 밀수船員 11명검거

【釜山】부산지검 특수부는 1일 히로뽕원료를 전문으로 밀수입해온 외항선 선원조직과 히로뽕제조 밀매등 각기 다른 3개 전문조직 18명을 적발, 이중 11명을검거, 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외환관리법위반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7명을 같은혐의로 수배하는 한편 히로뽕 원료 40㎏과 히로뽕완제품 2·5㎏, 제조기구 60점등을 증거물로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시中區中央洞소재 K해운소속 컨테이너화물선 매리스타호(2천톤)조리원 李東休(31·西區忠武洞5가38) 조리장 崔台俊씨(35·釜山鎭區楊亭4洞73)등 2명은 지난8월17일과 9월16일등 2차례에걸쳐 대만 기륭항에서 재대만 동포 김모여인 (45·일명 마산댁)에게 미화 1만4천4백달러를주고 히로뽕 원료인 염산에페드린 60㎏ (시가 4천2백만원)을 구입, 선실 나무벽속에 비밀실을 만들어 숨긴후 麗水와 釜山에 양륙했다가 적발됐다。【聯】

## 海上밀수特攻隊 6명검거

### 三千浦 밍크목도리등 3억원어치

【三千浦】三千浦경찰서와세관은 30일 3억대의 밍크목도리등 밀수품을 해상에서인수하려던 대종역씨 (33·釜山市中區富平洞1街10)등 6명의 해상밀수특공대를 검거, 관세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일본 선박으로부터 인도받은 밀수품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범 대씨는 지난19일부터 三千浦市仙龜洞 대원장여관에 묵으면서 평소 친분이 있는 일본下關거주 재일동포 모씨와 10여차례 국제전화를 통해 밍크목도리등을 보내주면 돈을나중에 지불키로 약속하고 29일밤 11시께 남방 해상에서 일본쾌속정과 접선키로 했다는것。

경찰은 이 해상밀수특공대를 가장, 지난29일밤 11시께 이들의 접선장소인 전남거문도동남방 30마일 상대도동쪽 해상에서 일본쾌속선박으로부터 밍크목도리 5백70개, 세이코시계 1천1백50개, 녹음기 4백개등 모두 13품목 (시가 3억원) 의 밀수품을 인도받고 일본선박을 나포하려 했으나 이를 눈치챈 일본선박이 도주해 버렸다는 것。【聯】

◇李振羲문공부장관이 全斗煥 대통령의 아프리카및 캐나다巡訪선물및 사진전시회개막식에 참석, 전시품을 돌러보고있다。

## 全大統領 阿·加國순방 어제부터 膳物·사진展

### 德壽宮 현대美術館

全斗煥대통령의 아프리카 4개국과캐나다巡訪선물및사진전시회가 30일상오 서울德壽宮 현대미술관에서 李振羲문공, 朴璟院총무처장관등이참석한 가운데 개막됐다。

오는 13일까지 열리는이 전시회에는 화석이된 나무로만든 차탁자 (케냐) 土着部族長의 복장 (나이지리아) 코끼리象牙 (가봉) 수놓은벽걸이 카페트 (세네갈) 등 92점의선물과 巡訪기간중의 動靜을 담은 천연색사진 98점이 전시되고 있다。

## 변호사登錄·개업 대한辯協서 관장

### 내년부터 실시

정부는 30일 법무법인제도(변호사회社)를 신설하고 변호사의 등록및개업에 관한 업무를 법무부에서 대한변호사협회로 전면이관하는것 등 변호사단체의 자율적 기능을 강화하는것을 골자로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법무부가 마련,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변호사법개정안은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내년1월1일부터 시행된다。

## 鄭총장 解任철회 國民大學 이사회

학교법인 국민학원 재단이사회는 29일 하오 긴급이사회를 열고 鄭範錫총장에대한 해임 결의를 취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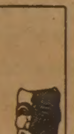
## 명절紅疫

## 성묘도 못가는 서울驛長 李鍾準씨

## 「서울의 守門將」 발바닥이 뜨겁다

추석등 명절때만 되면 서울역장을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서울역구내를 뒤지고 다닌끝에 간신히 소매를 잡은 李鍾準서울역장(57·사진)은 발바닥에 불이 났는지 가만히 서있질 못한다。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면서도 눈은 연신 몰려나가는 귀성객을 좇는다。

『미안합니다。서울역장이란게원래 이런자리라서…』



철도공무원이면 누구나 한번 앉아보고 싶은 「서울의 守門將」이지만 1년에 4번은 호된 홍역을 치러야 한다。新正、舊正、여름휴가철、秋夕의 대수송기간중엔 서울역장은 그야말로 눈코뜰새가 없다。특히 연중 최대의 민족대이동이 시작되는 추석엔 「불난집강아지」처럼 설쳐대야한다。

추석귀성객수송기간은 28일부터 10월4일까지 1주일간이지만 李씨는 한달째 긴장속에 살고있다。8월하순부터 수송계획을 세워 표를 미리 만들고 예매를 해야했기 때문。

李씨는 지난28일부터 아예 역장실 옆방에 철침대를 가져다 놓았다。새벽5시5분발 부산행통일열차로 시작、다음날 0시5분발 장항선완행열차까지 그의 발바닥이 식을틈이 없다。26개임시열차를 포함、매일 94개열차를 무사히 출발·도착시킨 후에야 딱딱한 철침대에 두어시간이나마 몸을 말길수있다。

추석귀성객수송기간중 서울역과 서부역을 통해 서울을 빠져나갈 예상귀성객수는 작년보다 2%많은28만5천명。李씨는 이많은 귀성객을 모두 보낸 5일쯤에야 하숙방에서나마 홀로 부산에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발을 뻗을수 있다고 한다。

26살때 역수(驛手)로 출발, 지방도시의 역장, 본청의과장등을 두루 역임한뒤 지난해6월부터 서울역에서근무한 李씨는 그의타고난부지런함탓인지 그말썽많다는 자리에서 6번째 홍역을 아무탈없이 치러내고있다。

11만여명의 귀성인파가 몰린30일에도 30년만에 고향을찾는 재일교포에게 입석표를 직접사주기까지한 李씨는 『남들처럼 제때에 성묘를못가 조상에게 죄송한 마음뿐』이라면서도 예전처럼 인파가빠진 광장에 술병, 고무신, 미아등이 적은것이 대견스럽다며 흐뭇해한다。【方敬俊기자】

◇이사람이醜行犯 추행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유엔 북한대표부3등서기관 吳남철。

## 추행 吳남철 出頭 번복

### 北傀 유엔代表部

【뉴욕=金泰雄특파원】유엔북한대표부는 추행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3등서기관 吳남철이 美당국에 의해 정식추방되기전에 적당한 구실을 찾아 미국을 떠날수있는 방법을 찾고있는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유엔관측통들은 북한대표부가 처음엔 吳를 웨스트체스터검찰청으로 자진출두 시키겠다고 밝혔다가 하루전인29일 이를 번복한것으로 미루어 북한측이 시간을 끌면서 외교적으로 수습하려고 안간힘을 다하는것 같다고 풀이했다。

美국무성측도 영장발부후에 대해 추방령을 내려 유엔공관안에서 숨어있는吳에 집행을 의뢰하는 쪽을 택할것으로 보인다。【뉴욕支社=聯】

## 稅務署員 피살사건 피고5명 上告기각

대법원형사부는 30일 서울北部세무서원 姜貞根 피살사건 상고심선고공판에서 주범 金明煥(23)등 피고인5명의 상고를 기각, 최고무기징역에서 징역2년까지를 선고한 원심형량을 확정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01

## 歸鄕버스 전복 女工10명 다쳐

【馬山】30일상오9시40분께 경남咸安郡 郡北面小浦里앞 남해고속도로상에서 귀향하는 여자근로자를 태우고가던 부산태화고무소속 부산1나2112호 통근버스(운전사 홍인표·40)가 빗길을과속으로 달리다 정차해있던 번호미상의 관광버스를 들이받고 높이3m의 언덕아래로굴러 이버스에 타고있던 태화고무 여고 천옥신양(27·晋州市下大洞53의3)등 10명이 중경상을입고 진주제일병원등에입원 가료중이다。【聯】

IAN BELFER

공인회계사(C.G.A.)

여러분의 개인세무및
보고서 작성과 사업회계및
장부정리를 성심껏
해 드립니다.

855 Boul Alexis.
Nihon Montreal,
Quebec H4M 2B8

☎ : (514)336—0893

캐나다 전역에 걸친

콘테스트 세일

SANYO 자동·보온밥통

기간 : 1982년10월1일~12월31일까지

각 식품점에서(소매상) 산요(SANYO) 일본밥통을 싼 가격에(경품티켓과 함께) 구입할수 있으며 티켙에 당첨되면 좋은 상품을 드립니다.

● JAPAN FOOD CORP(CANADA) LTD. TORONTO
● PRODUITS ALIMENTAIRES DU JAPON(CANADA) LTÉ MONTREAL
● ASIAN FOODS—VANCOUVER

MARVIN STAR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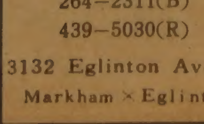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CTRA, PARK·AVENUE, 벤트럭, USED·CAR

Auto Mechanic License, Auto Body Licence 소유
Chassis Frame, Front End Alingnment Certificate 소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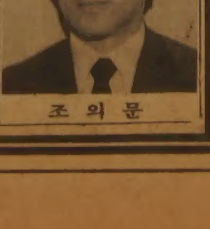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Best Price
▪ Best After Service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조 의 문

# 三星、OB눌러 優勝눈앞에

## 프로野球 4시간 大攻防… 半게임差 선두에

## 12회말 咸學洙 內野결승타

## 靑龍이기면 後期리그 제패

2-1

【大邱】三星·라이언즈가 프로야구 후기우승의 키를잡았다. 三星은 29일 홈구장에서 벌어진 선두 OB·베어스와의 8차전에서 연장 12회말 咸學洙의 굿바이내야결승타로 OB에이스 朴哲淳을 기습, 2-1로 역전신승, 27승12패를 기록, 반게임차로 선두의자리를 빼앗았다. 三星은 10월2일 MBC와후기우승을건 마지막 한판승부를 벌인다. OB는 이날 패배로 27승13패를 기록했다.

OB는 三星이 MBC에질 경우에만 27승13패의 공동우위를 마크, 三星과 후기우승결정전을 갖게된다. 三星은 MBC에게는 4승3패의 우세를 보이고있다. 우승을 가름하는 양팀의 마지막대전을위해 OB는 우완에이스 朴哲淳을, 三星은 좌완에이스 權永浩를 선발로 기용.

두투수의 역투로 5회까지 진행되던 0의행진은 6회초 선공팀 OB의 4번타자 金宇烈의 솔로홈런으로 깨졌다.

9월15일 홈런12호 이후또 다시 침묵을 지키던 OB의 홈런타자 金宇烈은 6회초2死후 1-1에서 三星선발 權永浩의 제3구를 강타, 왼쪽 펜스를 넘기는 선제솔로 홈런을 날렸다.

朴哲淳의 호투에 6회까지 2안타로 눌리던 三星도 7회말 1死후 대타로 기용된 7번 千普成이 좌중월 2루타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8번 金漢根의 중월적시 2루타로 1-1의 동점을 만들었다.

三星과의 최종전에 후기우승을 건 OB는 9회초 5번 申慶植의 우전안타, 6번 金裕東의 3루앞 내야안타로 無死 1、2루의 황금찬스를 포착했다.

OB의 金永德감독은 두번 다시 맞기 어려운 이 찬스에서 7번李洪範에게 보내기번트를 지시, 그러나 李洪範은 두차례나 번트에 실패하고 결국 三星의구원투수 黃圭奉에게 三振으로 KO되었다. 2死후 타석에 들어선 OB 8번 金贊文은 히트·앤드·런에 실패, 2루주자를 죽이고 자신도 레프트·플라이로잡혀 허무하게 득점찬스를 잃어버렸다.

7회이후제일은 OB의 朴哲淳、三星의 黃圭奉、두 우완의 투수전으로 진행돼 연장 11회까지 양팀 모두 승리의 길목을 열지못했다.

◇29일전적

◆대구

OB 000 001 000 000－1

삼성 000 000 100 001－2

〈연장12회〉

▲홈런＝金宇烈 (6회·OB)

◇곰문 獅子、펄쩍뛰며 '萬歲' 三星라이언즈와 OB베어스의 死鬪. 연장12회 2死주자 1·3루에서 三星5번 咸學洙의 내야결승타로 3루에있던 許奎沃이 결승점을 올린 뒤 펄쩍뛰면서 기뻐하고있다. 【大邱＝徐鍾道기자】

◇후기중간승패표 〈승—패 : 29일 현재〉

| 팀 | OB | 삼성 | MBC | 롯데 | 해태 | 삼미 | |
|---|---|---|---|---|---|---|---|
| OB | ■ | 4－4 | 4－4 | 6－2 | 5－3 | 8－0 | [illegible] |
| 삼성 | 4－4 | ■ | 4－3 | 4－4 | 7－1 | 8－0 | [illegible] |
| MBC | 4－4 | 3－4 | ■ | 4－4 | 5－3 | 8－0 | 24－[illegible] |
| 롯데 | 2－6 | 4－4 | 4－4 | ■ | 2－4 | 4－2 | 16－[illegible] |
| 해태 | 3－5 | 1－7 | 3－5 | 4－2 | ■ | 5－3 | 16－22 |
| 삼미 | 0－8 | 0－8 | 0－8 | 2－4 | 3－5 | ■ | 5－33 |

## 金在博 MBC와 계약

## 2일 對三星戰서 데뷔

年俸 2천4백만원

한국아마추어 야구의 간판스타였던 金在博(28)이 지난 1일 폐막된 제27회 서울세계야구선수권대회우승을 끝으로 아마선수생활을 끝내고 30일 연고지 프로팀 MBC 靑龍과 계약했다. 金은 2일 大邱 三星·라이언즈와의 후기시즌 최종전에서 프로데뷔전을갖는다.

MBC는 계약내용을 밝히지 않았으나 수비와 공격의 출중한 스타인 金에게 연봉 2천4백만원, 계약금 2천만원 이상으로 정해진 특급선수 이상의 대우를 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해태·롯데戰 연기

### 프로야구 光州게임

30일 光州서 열릴 예정이던 프로야구 후기리그 해태—롯데간의 더블헤더는 비로 연기됐다.

# LA五輪 축구豫選 한국誘致

## 축구협회 결정 신청서 곧 AFC에 발송

대한축구협회는 30일 이사회를 열고 84년 로스앤젤레스올림픽축구아시아지역예선전을 83년봄 한국에 유치키로 결정했다.

LA 올림픽 축구예선전은 내년3월부터 열리며 본선진출 16개팀중 아시아지역에서는 3개팀이 출전자격을 획득한다.

아시아지역 예선전의 참가국 組편성과 대진일정、대회장소등 주요문제는 오는11월 뉴델리에서 열리는 아시아축구연맹(AFC)총회서 결정된다. 축구협회는 유치신청서를 금명간 AFC에 발송할 예정이다.

축구협회의 관계자는 침체일로의 국내축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올림픽、월드컵 예선전과같은 비중있는 경기를 유치하는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예선전 유치에따른 구체적문제를 관계당국과 협의키로했다.

## 아시아선수권파견 跆拳道선수단확정

대한태권도협회는 제5회 아시아 태권도선수권대회(12월10~12일 싱가포르)에 파견할 핀급의 崔天(동성고)등 10체급의 국가대표선수를 최종확정했다.

한국은 74년 제1회서울대회이후 4連覇를 기록했다.

◇대표선수명단

▲핀급＝崔天(동성고) ▲플라이급＝權基文(서울체고) ▲밴텀급＝金鍾基(해군) ▲페더급＝張明三(동성고) ▲라이트급＝韓在求(청주대) ▲웰터급＝鄭東秀(경희대) ▲라이트미들급＝吳日男(대구대) ▲미들급＝李東浩(청주대) ▲라이트헤비급＝文鍾國(한체대) ▲헤비급＝張勝和(해군)

## 加·高大 비겨

### 大學친선농구

캐나다 브리티시·콜럼비아대학 초청 대학친선농구경기 3차전이 30일 장충체육관서 열려 高麗大는 접전끝에 캐나다와 76-76으로 비겼다. 캐나다는 방한전적 1승1무1패를 기록했다.

高麗大는 전반 중거리슛으로 여유있게 리드를 잡았으나 후반 캐나다의 장신 파워에 눌려 비겼다.

고려대 76(38 38－47 29)76 캐나다

533－2363 World Book 백과사전

# 日프로야구의 오늘 (下)

美國人교사에 의해 日本땅에 처음 야구경기가 소개된 것이 1873년(明治6年). 日本은 금년으로 야구역사 1백10년째를 맞고있다.

중학、대학야구로 발전되던 日本야구는 1934년 베이브·루드를 비롯한 美國의 메이저·리그 올스타팀 방문으로 자극을 받아 1936년 巨人、阪神、阪急、金鯱、名古屋、大東京、세너터스등 7개구단이 창설되고 직업야구연맹이 성립됨으로써 비로소 프로시대에 접어들었다.

종전후 1950년 현재와 같은 센트럴、퍼시픽의 양리그로 나뉘었고 고라꾸엔구장부터 조명시설을 갖추기시작、나이터시대를맞게됐다. 프로야구에 코미셔너제도가 도입된것은 1951년부터.

코미셔너사무국에 의해 구단창단이 유도되고 프로야구 전반에관한 운영·감독이 실시되고있는 한국과는 그 조직순서와 기능이 전혀 다르다.

각구단은 소유구장、또는 임대받은 구장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입장수입관리와 팬서비스로 구단을 운영한다. 79년이래 日本프로 12개구단은 매년유료관중 1천5백만명 이상을 유지하고있다. 특히 센트럴·리그 6개구단은 퍼시픽의배에 이르는 1천만명선을지키고있다. 센트럴·리그의 강세는 최고의 전통과 인기를가진 巨人덕분. 巨人의 유료관중은 센트럴·리그전체의 50%를 넘는 2백90만명선이다. 입장수입만50억엔이상、그외기념품판매

## 전용球場중심 球團운영

## 巨人인기 不滅 年收50억엔

### 팀마다 1軍만 60여명…한해 관중 千5백만명

### 피눈물訓鍊에 대우는 最上

◇프로야구 선수연금

| 근속햇수 | 매년 연금 |
|---|---|
| 10년 | 528,000엔 |
| 11년 | 554,400엔 |
| 12년 | 580,800엔 |
| 13년 | 607,200엔 |
| 14년 | 633,600엔 |
| 15년이상 | 660,000엔 |

| 근무햇수 | 매년납입액 |
|---|---|
| 3년까지 | 41,000엔 |
| 6년 〃 | 55,000엔 |
| 15년 〃 | 69,000엔 |
| 16년이상 | 0 |

◇프로야구 유료관중

| 리그 | 센트럴 | 퍼시픽 |
|---|---|---|
| 77년 | 911만 | 411만 |
| 78년 | 999만 | 411만 |
| 79년 | 1천75만 | 522만 |
| 80년 | 1천32만 | 580만 |
| 81년 | 1천11만 | 555만 |

비롯 최고의수입을 올리고있다.

巨人과 日本햄이 함께쓰는 고라꾸엔구장은 연간40억엔(円)의 매상을 올린다. 그중 양구단의 구장 25억엔＝사용료이상、광고수입이 10억엔 정도다.

요꼬하마구장을 빌어쓰고있는 다이요(大洋)웨일즈의 영업부장 와꼬씨는 82년시즌 3만명수용의 요꼬하마구장이 11번 만원을 기록했으며 巨人과의 13게임에서 8번만원이었다고 巨人의 인기를 인정했다.

웨일즈는 팬서비스로 오프·시즌중에 투·포수등 5명선수를 1개조로야구교실을 운영하며 스폰서를얻어 여행티킷、헬멧、사인볼등 각종기념품을 담첨된 팬들에게 선사하기도 한다.

코미셔너사무국은 12개 각구단으로부터받는 연간 5천만엔의 기금、올스타3

◇필사적인 방어. 日本프로야구는 50년의 연륜에 걸맞는 기술과 박진감을 자랑한다.

자전과 日本시리즈 7차전의수입으로 운영되며、사무국운영에 약 4억엔、선수연금에 약8억엔을 지출한다. 올스타전과 日本시리즈의진행、심판·기록원관리、연금、야구박물관운영등이 코미셔너사무국의 주임무다.

日本프로야구 구단은 1軍선수로만 60명씩을거느리고있다. [illegible] 활약할수있는선수는그중20%인12명정도에불과하다.

1년간 어떻게 슬럼프없이、부상없이 베스트9으로 살아남느냐. 센트럴·리그 우승을 목전에 두고 고라꾸엔에서 만난 巨人의 王貞治조감독은 『천재가 따로 없다. 오직 땀속의 피눈물나는 훈련만이 스타로서의 영광을 약속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方錫皡기자】

##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朴婉緒 作 金光培 畵 〈230〉

### 미라 온 아이 ㉝

오목이는 임화이가 증오로 빚은 아기가 몸속에서 자라는게 두려웠다. 아기의 백날후 임화이에게 안긴 기억은 손가락으로 셀 정도였고 허나잖이 죽음에 시여했던 기억처럼 끔찍했다.

임화이는 욕설이나 파괴로서 그의 기운을 다 풀지못할때 손찌검을 했고, 손찌검이 지나쳐 폭로 지기고 목을 죄고도 미움이 남아돌때、심장에 칼을 꽂듯이 잔혹하게 그녀의 몸에 자신의 미움과 욕망을 쏟았었다.

그렇게 미쳐 날뛰는 미움의 씨앗과 결합해서 새로운 생명이 생긴 자신의 몸이 오목이는 섬뜩해 숨졌다.

첫애를 뱄을때 그녀는 꿈속에서고 깨어서고 배고 자주 그녀를 향해 달려오는 아이를 보았었다. 그러나 이번엔 임신의 징후가 뚜렷해질수없이 뚜렷해진후에도 아기를 볼수 없었다.

그땐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미래의 아기를 볼수있었지만 지금은 희망이 없기 때문일까? 몸속에서만 아기가 자랄뿐 마음속은 텅 빈채였다. 아기를 볼수없는 뿐아니라 몸속의 재생명을 느끼자마자 몸브던 부드럽고 다사로운 정도 되살아나지않았다.

오목이는 입밖에 내서 말하지않았지만 임화이도 그녀의 임신을 알아차리게 됐다. 배가 남이 알아볼만큼 부른 뒤였다.

『내가 죽일 놈이야, 다신 안그럴게』.

며칠만에 들어온 임화이가 생트집끝에 매질을 하다말고 목물 이렇게 말했다. 그의 작은 눈에 오래간만에 희망이 반짝거렸다.

오목이는 임화이가 다시 희망을 갖게된게 반갑지않고 무서웠다. 임화이는 오목이를 학대하고나서부터 술에 절고 몸을 함부로 굴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보다 더 우람하고 억세진 것 같았다.

자신이 위축되고 메말라가는 느낌에 따른 심리적인 느낌에다 두려움、미움까지 겹쳐 오목이에겐 임화이가 황소만큼이나 커보였다. 그렇게 큰사내가 너무 가냘픈 희망에 허겁지겁 매달리려는것 같아서 그만두라고 소리지르고 싶었다. 그녀는 새로운 나기에게 아무런 희망도 걸지 않았다.

새로운 희망때문에 그의 폭력이 다소 누그러졌다고해서 오목이의 고통이 덜어지진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가 새롭게 꿈꾸는 미래의 가족에서 곽삼동이는 제외되어있음을.

젊으면 미움을 찢은것처럼 보이는 그가 곽삼동이를 바라보는 눈은 험해 부릅때보다 훨씬 흉흉하고 배타적이었다. 그가 희망을 갖고부터 오목이는 더욱 비참해졌다.

곽삼동이의 몰골도 말이 아니었다. 사랑이없이 아이가 자랄수없다는걸 몸소 입증이라도 하려는 듯이 백날에 그렇게 잘 웃고 탐스럽던 아기는 꺼칠하고 잘 웃지도 잘 울지도않는 아이로 자랐다. 오목이가 아무리 뒤에서 없심히 거둬 먹여도 아기는 살 찌지 않았고 아무리 씻기고 예쁜 옷으로 입혀도 아기는 헐벗어 보였다.

어느날 오목이는 동네 여편네들이 아기를 보며 입게 수군대는 소리를 들었다.

『세상에 불쌍하기도 하지. 에미 애비가 멀쩡한대도 고아원에서 갓 데려온 아이같다니깐』

오목이는 그 수군거림에 심한 충격을 받았다. 세상에、내 새끼한테 무슨 악담을 못해서 고아원 아이라니、그녀는 몸서리를 쳤다.

광고문의 533·2361


## 토론토시

### 쓰레기 수거일변경

추수감사절.

1982년10월11일(월)

1982년 10월11일(월)에는 쓰레기 수거가 없읍니다.

정기 월요일(10월11일) 수거는 화요일 10월12일날 수거합니다.

정기 화요일(10월12일) 수거는 수요일 10월13일에 수거합니다.

10월13일, 수요일에는 신문지나 부피있는 물건은 수거치 않습니다.

신문지와 부피있는 물건은 수요일 10월20일에 수거합니다.

★주의사항: 토론토에는 18개소의 유리와 금속을 재생하는 장소가 있읍니다. 7월동안 344톤의 신문지와 53톤의 유리조각 그리고 5톤의 깡통이 수집됐읍니다.

더 이상의 안내는 367-7742로 전화하십시요.


주간女性

Richard Y. K Wong Insurance Broker

보 험

⊙자동차 보험
⊙주택 보험
⊙상업(가게 · 레스토랑등)전문

312 DUNDAS ST. W. TOR.
(B)977－4057 (H)461－7769
Registered Insurance Broker 리차드 · 왕

중국 레스토랑
Golden China
(식당 겸 술집)

⊙바베큐 전문(오리 등등)
⊙홍콩 전문요리사로 칸토니즈 음식.
⊙Dim Sum.

195 Dundas St. W. (던다스×유니버스티)
☎ : 977－3777 (오전10시－새벽1시까지)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중국인경영으로 최선을 다해 봉사합니다.

721 Bloor St. W. 크리스티 써브웨이)
530－1222 Mr. 윙
536－6250 호세환

털코-트 원하십니까?

Paul Magder FURS

※밍크외 각종 털제품 3000점이상을 준비하고 있읍니다.
※한국말을 하는 점원이 여러분을 도와 드립니다.
※ 스파다이나 208번지에는 지점이 있읍니다.
※언제나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있읍니다.

신품 $150부터
중고 $99부터

※ 보험 세타 스토레이지(차께 보관), 수리 추레이드인(Trade-ins)
※ 밍크외 각종 털코-트, 자켓 모자 칼라 스톨 남성모피

〈영업시간〉
12:00~5:00 일요일
9:00~6:00 월, 화, 수, 토
9:00~9:00 목, 금

202+208 SPADINA AVE.
☎ : 363－6077
Mrs. 전

CENTRAL CANADA COLLEGE

특수영어프로그램

◎ 고등학교 11학년~13학년을 위한 영어교육을 위한 신청
◎ 학기는 매년 1월, 6월, 8월에 시작함.
◎ 컴퓨터 · 싸이언스및 제2외국어로서 영어교육을 위한 훌륭한 선생 보유
◎ 학생들의 대학교입학을 위한 보조 역활
◎ 외국학생들의 비자신청 역활

◎ 자세한 사항은 444－1136 MR. WAN 또는 윌리암

사무실시간(월~금)오전9시~오후5시
60 Park Lane Circle (베이뷰×로렌스)
☎ : 444－1136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한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LEASE 취급함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거구장

결혼 · 회갑 · 생일잔치 ·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가수 : 김미리사
BAND－기타 : 신상철
올겐 : 함효상
드럼 : 권순근

월~목 : 오후2시~새벽2시
금 : 오전11시~새벽2시
토~일 : 오후2시~새벽2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한국인 유일의
야채·과일·화초 도매상
◉각종 Plant
◉저렴한 가격
◉품질 보장
463 Carlaw Ave.(at Gerrard)
전화 : 465-8167 대표 곽 덕 렬

#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범한서적
◉한국전집류 ◉고전, 현대소설
◉유치원 백과, 새생활 백과사전
◉사전류, 가정요리, 꽃꽂이 ◉광복20년
1712 Queen E. 전화 : 690-2216
북미주총판책임자 최 규 흘

## 사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 (R)654-5691 ·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 생선

K & R Sea Food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 소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건축·목수일" 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씰링,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 시공.
언제라도 전화 상담 환영.
전화 : 669-5784 (Mr. 심)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 식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중국집) 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 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 : 533-236

## 식품점

삼복식품. (주7일 영업)
금요일 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시~오후10시까지
제일좋은 물건만을 골라, 제일 싼값으로 책임있게 봉사합니다. 여름철 야외 바베큐는 맛있고, 살많은 삼복갈비를 이용하세요. 시내어디든지 무료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밭 식 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 274-540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 - 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마련.
전화 : 532-1054(아리랑식당 옆)
712 Bloor St. W. 김 덕 기

서 울 식 품 (동부)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 실내장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님

## 악기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530-1870
오전 11시~오후 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 의류수선

양장 맞춤·주문배수(수리는 남녀양복 모두 취급)
여성복 Design 변경 또는 재단만 원하셔도 해드림
100 Glenshields Ave. 전화 : 669-5784 Mrs. Kim

##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 여행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B) 임 태 호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Eastside of Metro Toronto)
18년간의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심. 스카보로(동쪽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 (불라도)

##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 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 인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김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완전한 차체수리
★Rust Proofing.
★수리중차 대여
37 Primrose Ave. Toronto
전화 : 533-8507, 533-8508 이 영두·이건하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 장의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췌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완인우대
이성배, 이현우 사범 직접 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 T·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 페인트 · 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전화 : 731-4204 (Mr. 신)

## 하드웨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 한방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 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경명등 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광고국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보다 효과있고 신속한 광고로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오니 광고에 관한 문제라면 언제든지 저의 광고국으로 문의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협조해 드리겠읍니다.
월요일~금요일(오전 9시~오후 5시반)
토요일(오전 10시~오후 4시)
한국일보 광고국 533-2361

##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서대진 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세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회계사무소
33 Cherryhills Rd. Concord, Ont.
전화 : 669-2710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8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 구인

유경험자 Cashier 구함(남)
남자학생으로 Part Time원하시는분 환영
900 Queen St. E.(at Logan Ave.)

Shoe Repair Helper
Shoe Repair에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263 Morningside Ave. at Kingston Rd.

Hamburger식당 Carhier구함 착실하고 영어 잘하는 여자분 7:00a.m.-3:00p.m.까지 Take out.
전화 : 274-7010 Mr. 유.

성실한 Full Time 여자 캐시어 구함
제랄드 & 쿡스웰
전화 : 465-6885

식품점에서 일하실 건장한 남자분 구함
능력에 따라 우대함
전화 : 532-1054(제일식품)

집에서 일하실 할머니 급구
(숙식제공) 전화 : 762-1572

Leading clothing manufactures requires payroll clerk to calculate and record weekly piece work payroll. Apply: 637 Lakeshore Blvd. W. Tor.
Tel: 591-7161

가정교사 하실분(하루3시간씩 - 주5일)
(7살, 9살) 전화 : 762-1572

일본음식 겸 중국음식 요리사 구함(미시사가)
전화 : 274-7010 Mr. 유

인쇄 기술자 구함.
Ambassador Printing
전화 : 656-2050 (마리오)

경험있는 남·녀 학생 Store Helper 구함. ★미시사가 지역.
전화 : 625-1620

## 개인지도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 535-0708 박 명 진

## 구혼

결혼상담, 전자침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 60세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최·김

입주하셔서 8살된 여자아이 보아주시고
가사일 좀 살펴주실분 구함.
전화 : 624-5897

## 기타

걱정이 있으신 분은 오십시요. 636 Vaughan Rd. #1
Card, 손금, Tarot등으로 당신의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전화 : 652-1280 (Mrs. Adroe)

## 베비시터

입주하셔서 애기 봐주실분 구합니다.
스카브로 지역.
전화 : 284-3031

## 매매

Unique Country Store in the Hockley Valley
최근 부동산 개발지역으로 알려진,
토론토에서 45분 거리의 휴양지.
주유소를 포함한 마켓, 그리고 큰 저택, 4개의 건물,
수영장 포함. 급매코저 낮은 가격으로 팔려고 함.
전화 : 519-822-8530 Betty or Lorne Patterson.
519-824-1123 Canada Trust Realtor.

Becker Store for Sale
1878 Weston Rd.(로렌스)
전화 : 241-3070(Mr. 김)

〈채소 염가 판매〉 미시사가 농장
◉판매시간: 10월, 11월은 토, 일, 공휴일 Open(시간 오후1시~6시)
◉판매방법: 칼과 Box를 준비해 오셔서 직접 뽑아가십시요.
◉채소종류: 배추, 각종무우(김장용)
◉장 소: 에그린톤과 Hwy 10에서 서쪽으로 1 마일 가면 두번째 라인 있음. 여기서 북쪽으로 500m가면 농장이 나옴.
◉연 락 처: 622-5509. - 미시사가 농장 -

건물 & 비즈네스 매매
(1) 매상 4,500 이상(W )
아스킹: $155,000(Hamilton)
(2) 매상 4,000-W.
아스킹: $99,000(Toronto)
전화 : 535-0028 Mr. Kim

각종 알로베라제품 판매, 쥬스·크림·로숀·약용크림외 다수품목 보유. 최저 염가 봉사합니다.
5439 Yonge St. 전화 : 222-4717 Mrs. 김

Hardware Store for Sale
Finch Ave.(토론토 북쪽지역) Very Good Business
(안정된 사업) 전화 : 654-6600(Domenic)

에토비콕 플라자
3층 벽돌 가게, 2층은 사무실로 쓰임.
151 Foot Deep lot, 파킹장 있음.
아스킹 : $265,000
전화: 763-5555 도리스·부르다
Cholkan Real Estate

Variety Stores
1. Ajax: W.T.O: $7,000 Rent: $1,260(M.)
리스: 6 years+5 years, 1,800 sq.ft. Asking: $75,000
2. Oshawa: W.T.O.: $8,000 리스: 6 years. Asking: $60,000
3. Oshawa: W.T.O.: $3,500, 리스: 6 years, 렌트: $500
아스킹: $29,900
Bagot Realty Inc. Realtor 1-579-4010
after hours, Frank Magnus 683-8154

Building내에 있는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넓이: 2500 sq.ft. Open한지 10개월 정도됨
된 Building에 간호학교가 있음. 갑작스런 형편으로 발전이 대단히 기대되는 곳이나 최저의 가격으로 팔고자 함. 아스킹: $20,000+스탁(네고.)
단. 모두 Cash 요구. 1-525-2928 (Mr. 엄)

건물과 버라이어티 스토아
주매상: $6,000 별도 입구된 2개의 2Bed Rm.Apts.
Mortgage는 주인이 인수함.
Sincere Realty Inc.
R: Better Call Before 9:00a.m. 444-0674
B: 497-8900

Italian Fish Business for Sale Eglinton & Keele
Good Condition. 10 years Lease. Rent : $280/M.
653-1725(Tues.-Fri.)Vito 242-3818(월)

성능좋은 중고 피아노 팝니다.
(아파트싸이즈)
전화 : 665-8233, 636-1430

Aurora-Variety Store, Apartment.
Variety Store.(800 sq.ft.) Basement stock Rm.(800 sq.ft.)
Apartment 4 Rms. + Bath Rm.
Asking price : $165,000 + all new equipment $20,000.
Phone. 889-8654 Mr. Jones.
W. R. Case Realty Ltd.

Basiness & Building for Sale
Grocery Market.
Hwy35번과 Hwy503번이 만나는 지점.
Toronto에서 동북쪽으로 1시간30분가량 걸리는 장소
년매상 : $700,000 Good Mortgage.
전화 : 705-454-3411(Jim)

영어쓰는 지역의 Super Market 팝니다.(몬트리올)
좋은 Lease와 낮은 Rent. 주매상: $16,000이상
윗층 Apt.도 Rent 가능함. 전화 : 514-481-3291 (Mr. 강)

Store for Sale
1년된 New Plaza에 위치한 장래성이 대단히 좋은 지역.
Lambton Gift & Variety 763-7317

Snack Bar Donut Shop &
Video Machine for Sale. 767-3301

성업중인 Variety Store for Sale. 가정사정으로 급매.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겠음. 주매상 : $3,000. 렌트 : $300(M)
전화 : 259-0323

Grocery & Variety Store매매
좋은 가격으로 팔고자 함
전화 : 469-3708(오후1시이후 연락바람)

"특별한 기회"
발전 가능성이 큰 이윤높은 소매업자가 자본이 있고 능력있는 투자가를 찾음.
현재의 연간 1백만달러 매상고를 두배로 늘릴 수 있음.

★회답처 : C.H. Eaton Asso.
1166 Bay St. #304
Tor. Ont.
M5S 2X8

Convenience Store for Sale. 가정사정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코저함. 주매상 $3,500-$4,000. Video 머신에서 주 300불 수입. 1-623-7000 Mr. 박

Restaurant Tavern for Sale, with property
(Dufferin & Steeles area)
전화 : 661-7767(크리스).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 차매매

77년 Chevy Malibu 2 Door. 49,000 mile.
Air-Con. AM-FM 카세트 $2,300 A-1 Cond. Certify.
전화 : 267-4770 Mr. 권

##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Ossington Subway 근처〉
2층 one bed Rm. 유지비포함 $350/M.
지하실 유지비포함 $150/M. 전화 : 531-3656

Victoria Subway 건너편 (Condominium)
3 Bed Rm. $700/M.(유지비 포함)
전화 : 698-1347 694-4812

One Bed Room 아파트 세놓읍니다.
College & Dovercourt
전화 : 531-6183

## 집렌트

4 Bed Room House전체를 세놓고자함(Brampton지역)
2 Bath Room, Family Room, Fire Place, 차고등.
학교와 Shopping plaza근처에 있음. 593-8943

단층집(Semi Detaches) 4 Bed Room 세놓음.
Home Bar등 지하실 꾸며져 있음.
스카브로지역(Neilson & Sheppard). 전화 : 968-9450

## 부동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섭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섭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 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 가구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링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 석 민

##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 관 광

코라메 관광(주)(제일여행사 2층)
일년내내 관광을 함께·····
649 A Bloor St. W. 전화 : 535-0853

## 꽃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 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제인·파크 꽃집(JANE PARK PLAZA안)
각종 파티·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622-8516(B), 279-3719(R)허소피아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 960-6265 Mr. 김

## 도서판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쓰
WESTON MALL(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광고문의 533-2361

##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5시 이후)

## 미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 미술연구소

U.C.Painting Studio
미술 개인지도, 유화·수채화·뎃상
전화 : 530-4991

삼우스튜디오(SAM WOO STUDIO)
Free Workshop(성인 미술교실)
58 Wade Ave. Tel : 537-7630

## 변호사

"이민법과 그에 따른 제반업무 전문"
새로 이전한 주소: 390 Bay St. 19층
Tor. Ont. ▲ 361-0404
▲ 593-1818
Barrister and Solicitor
SHELDON M. ROBINS

## 보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 보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얄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791-8196

## 비데오 센타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 사무용구및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 휜스웨이×이슬링톤 )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전화 : 252-7377 (R)762-4536 Mr. 안 수일

어떤 광고가
필요하십니까?